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 지수걸 저,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접거투쟁』 -

- 일시 : 2025. 2. 11.(화) 15: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 저작물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역사비평사, 2024년.
- 저작자 : 지수걸(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일 시 : 2025. 2. 11.(화) 15:00~18:00 ※ 2.12.(수) 09:00~10:00 특별전시 관람
- 장 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등
- 주 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일 정		내 용
15:00 ~ 15:0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사회 :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 인사말씀 -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신영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15:05 ~ 15:30	25'	<p>[저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지수걸(공주대 명예교수)
15:30 ~ 15:40	10'	휴 식
15:40~18:00	140'	<p>[지정 토론] * 좌장 :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희(대전대 교수) ○ 유바다(고려대 교수) <p>[자유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양식(前 청주대학교 교수), 박정민(전북대학교 교수)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p>※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 및 참가자 자유토론</p>

목 차

◆ 저자 발표문

-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수걸(공주대학교 명예교수) 1

◆ 지정 토론문

- 1. 혁명적 농민운동론으로부터 어셈블리론으로의 변화에 대한 논평
도면희(대전대학교 교수) 45
- 2.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논평
유바다(고려대학교 교수) 51

◆ 자유 토론문

- 1.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양식(前 청주대학교 교수) 55
- 2. ‘1894년 동학 어셈블리(ASSEMBLY)’ 토론문
박정민(전북대학교 교수) 63
- 3.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저작비평회 토론문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59
- 4.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저작비평회 토론문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60

오래전부터 그러했으나, 요즘 더욱더 체력도 딸리고, 총기도 사라져, 길고 복잡한 토론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틈틈이 생각나는대로,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할 말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니, 발제문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자살꼴을 넣은게 아닌가 영 찜찜합니다. 토론문을 미리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가된 혹은 수정된 부분은 글자를 키우거나 밑줄 표시를 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더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수걸 올림) ※자료집 제작은 최종 제출 발제문으로 편집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 수 걸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선행 연구에 뒤이어, 어셈블리 개념을 더 본격적으로 활용한 저작을 집필 중이다. 1892년 교조신원운동부터 1904년 갑진민회운동, 더 나아가 1919년 3·1만세운동까지, 사건사적인 관점에서 동학 어셈블리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논리적 결함은 물론이고 논증 자체도 엉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어셈블리 개념이나 다사건 개념을 충실히 적용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감당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 아예 포기하고 소박하게 접근할까 어쩔까,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자승자박을 한 꼴입니다. 하지만 연구사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문제제기라 여겨져 본 발제에서는 ‘無理’와 ‘無賴’를 무릅쓰며, 끝까지 밀어 붙혀 보고자 노력했다.
- 초고 집필을 대충 끝낸 상황에서 느낀 가장 큰 소회는, 모든 측면에서 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섰다는 것이다. 과부하가 걸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었다. 스스로도 답변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운 의문만 더 커질 뿐이었다. 어찌해야할지 가르쳐 달라, 오히려 간청하고 싶을 지경이다. 이런 차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재단과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토론을 통해 뭔가 출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후속 연구의 제목 및 목차]

1894년 동학 어셈블리(ASSEMBLY): 대파국의 서막 -19세기 후반 도회·의거 전통의 지속과 변용-

책을 내면서

1부: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1.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와 1894년 동학 어셈블리 – 1894년 동학 어셈블리는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에 기초한 assembly/occupy 투쟁이다.
2. 남접/호남/전투 중심 사건사 서술의 한계와 문제점 – 1894년 동학 어셈블리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사건(eventful)이다.
3.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건사 서술의 방법과 과제 – 1894년 남접·호남 동학군의 '농민전쟁'은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1892-1904) 과정의 한 사건이다.

2부: 1894년 사건 성격 재론

1. 1894년 사건과 동학의 연관성 – 동학은 믿음을 중시하는 교(敎)가 아니라 사세(斯世)와 사민(斯民)을 위한 주체 능동적인 배움(學)과 실천(行) 그 자체였다.
2. 대원군 밀지사건의 진상과 정치효과 – 밀지와 정변은 민중 주체의 어셈블리 투쟁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공작과 음모의 산물이다.
3. 난리와 피난의 사회사: 난리통의 공주사람들 – 역사가 과잉되면 과거에 대한 민중의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4. 1894년 동학 어셈블리와 을미의병의 연관성 – 동학 여당(餘黨)의 을미의병 참여론은 국사(國史)가 만들어낸 신화이다.
5. '동학 잔당 의적화론'의 실상과 허상 – 의적 담론은 입만 열면 의리를 강조하는 양반 유생들보다 오히려 도적놈들이 더 의리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뜻의 욕설이자 비아냥이다.

3부 1894년 사건 이후 도회·의거 전통의 지속과 변용

1.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전통과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투쟁 – 1898년 만민공동회 투쟁은 동학군이 경사직향(京師直向)하여 개최하려 했던 일종의 경사대도회(京師大都會)였다.
2. 1899년 '영학당(英學黨) 사건'과 만민(萬民) 어셈블리의 연관성 – '영학당 사건'은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실천하기 위한 영학회원(英學軍)의 재기포(再起·更起)였다.
3. 1894년 동학 어셈블리와 1904년 갑진민회운동 – 동학 어셈블리는 고조와 퇴조를 반복하며 1892년 말 교조신원운동으로부터 1904년 갑진민회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4. 천도교의 창립과 1919년 어셈블리 – 민중들의 모이고 모으는 힘, 특히 차이를 넘어서는 민중들의 연대와 협동이 한국 근현대사의 커다란 흐름을 뒤바꾸었다.

머리말

- 「전봉준 공초」를 읽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일본영사가, “왜 재기포했고,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라고 질문하자 전봉준은, “일본군과 관군이 수성전에 나서기 전에 산으로 둘러 쌓이고 강을 끼고 있어 지리가 형승한 公州(錦營)를 전격적으로 점거한 뒤, 공주에 雄據(=確據)·固守하며 일본군과 相持하고자 했다” 거나, “애국적 사민(士民)들과 함께 의려(義旅)를 규합(糾合)하여 일본군에게 격(檄: 大義布告)을 전하여 犯闕 사실 등을 請問·詰問하고자 했다” 라고 답변했다. 교과서적 상식¹⁾을 뒤엎는 발언이라 여겨졌다. 필자는 당시 이 발언을 공주를 점거한뒤 농성전을 벌이며 정치담판이나 협상을 벌이려 했다는 뜻, 달리 말하면 한양 점령을 도모하기 위해 북상한 것이 아니라, 兩湖의 要衝이자 중요 都會地(處)인 공주를 점거한뒤,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都會(民會)·義舉 문화에 기초하여, 모이고 모아, 점거하고 담판하는 (assembly/occupy: A/O으로 줄여 씀) 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 2014년 10월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120주년 학술심포지움에서, 앞서 소개한 전봉준의 진술을 토대로 「1894년 공주대회전 시기의 ‘공주 학거·고수 전술’ 과 ‘호서도회 개최 계획’」(『역사문제연구』, 33호, 2015)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주요 결론은, ‘공주대회전(會盟과 會戰)’은 전봉준(兩湖倡義領袖=會盟主) 등 ‘남접집단’이 ‘호남 농민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京師直向, 驅兵入京)하다 치른 遭遇戰이 아니라, 공주(錦營) 점거와 호서도회 개최 자체가 목적인 A/O 투쟁이었다는 것, 즉 당시 남북접 동학군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掎角之勢를 펼쳐 兩湖의 요충인 공주(大都會地)를 점거한 뒤 호서도회를 개최하여 애국적 사민의 항일의려를 형성하고자 했다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 그 무렵 박맹수와 정선원이 『공주와 동학 농민혁명』(모시는 사람들, 2015)을 출간했는데, 그 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 무렵부터 필자는 짬이 날때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지식정보시스템>이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DB>를 드나들며, ‘공주전투’와 관련한 자료, 특히 일본군과 순영무영 관련 기록, 『시천교종역사』 등 교단사 자료와 북접계 동학군의 회고자료, 공주 인근 유생들의 일기자료 등을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의 한계가 눈에 들어 왔다.
- 선행연구(『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역사비평사, 2024)의 초고를 발표한 것은 2019년 10월 우금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1894년 우금티,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까?』)에서였는데, 발제문의 제목은 <민회 전통의 지속과 변용 —1894년 사건 성격 재론>이었고, 토론자는 배항섭,

1) 한국사 교과서나 개설서는 공주 점거투쟁을 서술할 때 한결같이, “서울로 쳐들어가(驅兵入京, 起兵赴京)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북상하다가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의 최신식 무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홍동현, 이용기, 정선원 등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발표도 시론 수준의 거친 초고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건사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필자 나름의 분석틀이나 방법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토론회 이후 지역 신문사의 기자들이 ‘공주 싸움은 전투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불과했다’거나, ‘사망자가 천명을 넘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 다 내 탓이었다. 괜스레 불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다 때려치웠다가, 뭔가 아쉬워 다시 끄적대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안토니오 네그리의 『어셈블리(ASSEMBLY)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제언』(2020)²⁾를 일독한 뒤 생각을 바꾸었다. 그때부터 ‘1894년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려면, 네그리의 어셈블리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새로운 분석틀이나 방법론(다사건적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전체 사건사를 다시 구성해 보기로 작정했다.

- 어셈블리(assembly)란 national assembly(의회), general assembly(총회), ‘peoples’ assembly(인민회의=민중대회)’ 등의 用例처럼, 모두 모여 말과 뜻을 나누고 모으는 행위(집회), 혹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회)를 뜻한다(<Etymonline> 참조). 흥미로운 점은 갑오년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된 都會라는 말도 그 용례가 이와 유사하다는 사실이다(<한국사 DB> 참조). 어셈블리와 마찬가지로 都會라는 말도 전통시대부터 두가지 의미, 즉 都(도읍 都, 모두 都)자의 뜻 그대로 사람과 물자가 모두 모이는 장소(都邑, 都市) 이외에, 조선왕조 시기의 公都會처럼 특정한 공동체(사족=유생, 사찰, 보부상 등) 구성원이 모두 모여 말과 뜻을 나누는 행위(都會)라는 의미로도 쓰였다.³⁾
- 집필 초기에는 어셈블리를 동학군의 A/O(assembly/occupy) 투쟁을 설명하는 용어, 즉 동학군의 起包나 都會·義擧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 정도로 가볍게 활용했다. 그러나 후속연구(『1894년 동학 어셈블리: 대과국의 서막 —도회·의거 전통의 지속과 변용』)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후속연구에서 필자는 어셈블리를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와 동학군의 起包는 물론이고, 우리 근현대사의 흐름의 크게 바뀐 민족·민중, 국민·시민, 청년·학생, 노동자·농민 등 다중(multitude)의 모이기/모으기 투쟁, 즉 단순한 집회·시위부터 내전과 혁명, 또는 입법/제헌의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중의 투쟁까지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용어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활용했다. 더 크게 말하면 네그리의 규정처럼 어셈블리는, “① 현대의 사회운동들에 의해 제도화된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부터 근대 정치의 입법의회(legislation assembly)까지

2) 그간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공동 집필한 『어셈블리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제언』(이승준 등 번역, 알랩, 2020) 이외에 『선언 —전 세계의 빛진 사람들, 미디어된 사람들, 보안된 사람들, 대의된 사람들,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라!』(조정환 번역, 갈무리, 2012); 『전복의 정치학 —21세기를 위한 선언』(최창석·김낙근 번역, 인간사랑, 2012) 등 많은 저작들이 우리 학계에 소개되었다.

3) 都會라는 말은 都會地(都市)를 지칭할 때는 물론이고 사찰 공동체나 보부상 집단의 총의를 모으는 집회나 회의를 지칭할 때도 흔히 쓰였다(<한국사 DB> 참조). 조선왕조 시기의 公都會도 단순히 과거시험(小科初試)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관찰사나 유수(留守)가 주관하는 일종의 유생 ‘총회(general assembly)’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② 근대 시민법이 옹호하는 집회의 자유에서 노동운동의 핵심 이슈인 결사의 자유까지
 ③ 종교 공동체들의 다양한 會衆(包=東學 徒衆·都中) 형태에서 새로운 주체성을 구성하는 기계적 배치(machic assemblage)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자, 그것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적 가능성을 인식하기 위한 일종의 렌즈” 이다(네그리, 앞의 책, 33-34쪽).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셈블리, 또는 ‘동학 어셈블리’는 농민전쟁론을 대체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차용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모든 어셈블리(모이기/모으기) 투쟁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역사화하기 위해 네그리로부터 차용한 사건사 서술 개념(historiographical concepts)이자 규합 개념(organizing concepts)이다.

- 네그리의 어셈블리 개념을, 우리 역사 속의 모든 모이기/모으기 투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이를 어떻게 번역해야할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주디스 버틀러의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을 위한 노트』(창작과 비평사, 2020)의 번역자들은 어셈블리를 ‘집회’라 일괄적으로 번역했으나 역시 어색하다. 오늘날에는 죽은 말이 된 起包(각포 소속의 동학 도중을 모두 모으는 행위), 혹은 都會(모두 모이고 모으는 행위, 혹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말로 대체해 볼까 고민했으나, 역시 낯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용례 때문에 오해의 여지도 크다 여겨져 assembly를 번역하지 않고 한글 발음을 그대로 썼다.
- 『시천교종역사』의, “敎人(동학도=동학군)의 會集(起包 = 都會·義舉 = assembly)은 임진년(1892년) 7월에 시작해서 갑오년(1894년)까지 이어졌다.”는 언급처럼, 동학 어셈블리는 1894년 3월 무장 포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2년 7월경에 시작되었다. 게다가 전봉준이 남북접 동학군의 자진 해산을 선언한 뒤에도 동학 어셈블리는 1899년 영학당운동, 1904년 갑진민회운동 등등을 거치며 고조와 퇴조를 반복했다. 1894년 어셈블리 과정에서 전봉준 등 남접집단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1894년의 1차 봉기(제1차 농민전쟁)⁴⁾ 때는 물론이고 2차 봉기 때도 전봉준이나 남접집단은 동학 어셈블리의 한 주체였을 뿐, 중앙지도부가 아니었다. 게다가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는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 과정, 즉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또는 우연과 필연의 교차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다.
- 관변이나 유생측 자료, 신문기사 등은 1899년의 英學黨(英學軍) 사건, 1904년의 갑진민회운동, 또는 천도교 시천교 등 각종 ‘민중종교운동’의 주체들을 지칭할 때, 東學의 餘黨, 餘魁, 殘黨, 舊黨, 餘孽, 漏匪(漏網之匪類)라 폄훼하나 이들의 투쟁도 동학의 宗

4)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자들은 茂長 布告(起包)때부터 전주화약 시기까지를 제1차 농민전쟁 시기, 삼례 재기포 시기부터 그해 12월경까지를 제2차 농민전쟁 시기라 통칭하나, 이 책에서는 편의상 남접집단이 주도한 고부봉기 때부터 무장포고, 전주성 점거, 전주화약과 해산까지를 ‘1차 봉기’, 그리고 6월 21일 일본군의 궁궐점령과 쿠데타 이후부터 공주 점거투쟁이 종료되는 12월 말경까지 전국 각지 동학군의 각자기포를 ‘2차 봉기 시기’라 지칭하였다.

旨(主義)인 輔國安民⁵⁾을 실천한 동학 어셈블리 과정의 한 사건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예를 들면, 갑진민회운동을 주도한 진보회(이전 시기의 大同會, 中立會)는 1904년 11월 말에 이미 전국 각지에 185개의 지회를 설립했으며, 회원 수는 11만 7천여 명에 달했다.⁶⁾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어색(생소)함을 무릅쓰고 동학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활용한 이유는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의 전체 과정, 그 고조와 퇴조 과정(起包·再起·更起)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욕심 때문이다.

- 선행 연구에서 편의상(관행상?) ‘복접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1894년 어셈블리 당시 法憲과 法所 또는 師門과 教門은 있었어도, ‘教團’ (宗團)은 없었다.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최제우의 교조화(『동경대전』, 『용담유사』의 경전화)와 더불어 교단화가 일정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는 淵源이 같은 각지의 포접들이 개별적으로 주도하였지, 이를 전체적으로 이끈 집단이나 주체는 없었다. 요컨대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는 남접이던 북접이던 상관없이, 각지의 포접(대접주)이 각자기포하여 각자의 여건에 맞게 각자의 방식으로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을 실천하는 투쟁이었다. 따라서 애초부터 중앙지도부(콘트롤 타워)는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동학군의 起包란 무장투쟁을 위한 起兵이 아니라 各包接(大接主=大都所) 단위로 徒衆(都中)을 모으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 1892년부터 1904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 전체 흐름을 시기구분할 때는 무장투쟁을 연상케 하는 ‘蜂起’ 나 ‘戰鬪’ 보다는 동학군이 전유·전용했던 ‘起包’ (包를 일으키다), 또는 ‘都會·義舉’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실하다. 이런 이유로 전체 사건사를 다섯 개의 고조기를 중심으로, ‘제1차 기포(교조신원운동), 제2차 기포(고부봉기 이후의 1차 봉기), 제3차 기포(갑오변란 이후의 2차 봉기), 제4차 기포(1898년 만민 어셈블리와 1899년 5월 영학당 사건), 제5차 기포(1904년 갑진 민회운동)로 구분해 보려 했으나, 용어상의 혼란이 심할 듯하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부봉기부터 ‘전주화약(자진 해산)’ 시기까지를 ‘1차 봉기’, 갑오변란(=경복궁 점령과 쿠데타) 이후부터 공주 점거투쟁이 종식(자진 해산)되는 시기까지를 ‘2차 봉기’ 라 호명했다.
-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 혁명, 러시아 혁명이나 중국 혁명만이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

5) 輔國安民論은 조선왕조 시기의 정치문화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상이자 노선임이 분명하다. 왜 최재우는, 전봉준 등 동학군은 동학의 종지, 또는 어셈블리의 슬로건으로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앞세웠을까? 함지사지한 민중적 삶, 보국안민론으로 해결이 가능했을까? 보국안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의미할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이 분명하나, 심도있는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동학이나 동학군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보국안민이라는 동학의 종지 자체도 크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6) 성주현의 「동학혁명 이후 교단의 재건」(『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221-225쪽), 「전보회의 지회조직과 전개양상」(위의 책, 226-245쪽) 등 참조. 복접교단은 1903년경 “10만 교인을 관할하는 수창대령 이용구, 5만명을 관할하는 해명대령에 나인협, 1만명을 관할하는 의창대령에 문학수 등을 임명하는 동시에 1000여명 이상의 대접주를 비롯하여 수접주, 접주 등을 임명”하는 등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교단을 재정비했다고 한다. 손병희, 이용구 등은 정세 변화에 따라 민회를 주도하는 회사(결사=정당)의 명칭을 대동회 → 중립회 → 진보회 → (통합)일진회로 바꾸었다.

은 아니다. 게다가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이 있어야만 혁명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은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東學軍의 起包, 都會·義舉)처럼 내전과 혁명보다는, 민중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어셈블리(모이기/ 모으기), 즉 차이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했다. 선행연구에서 네그리의 어셈블리(모이기/모으기) 개념을 적극 차용한 이유는, ‘모이고 모아, 점거하고 담판하는 (assembly/occupy)’ 동학군의 정치적 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민중 등 다양한 집단주체(多衆: multitude)들이 자율적으로 배우고 실천한, 함께 모이는 모여드는 힘과 정치적으로 합심하여 행동하는 힘을 포착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와 1894년 동학 어셈블리

- 선행연구에서 강조했듯이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에 입각하여 1894년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구명하는 경우, (중앙)지도부가 가진 변혁 지향성(통일적인 사상과 강령), 즉 투쟁 자체의 내전 또는 혁명적 성격을 논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학 어셈블리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仁義와 民本을 강조하는 조선의 정치문화, 특히 19세기 후반에 꽃을 피운 도회·의거 문화에 주목해야 한다.
- 공주 점거투쟁은 물론이고 1894년 동학 어셈블리(都會·義舉, 起包) 과정에서 동학군이 가장 애호한 말은 同心協力, 同心義盟, 同赴國亂 등이었다. 당시의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 일부대호(一夫大呼)하니 삼도병응(三道竝應)하였다거나(『오하기문』) ▲ 일부계간(一夫揭竿)하니 만부상응(萬夫相應)하였다(『충경대도소 통문』)는 대목, ▲ 일창백수(一唱百隨)하고 팔역동성(八域同聲)하였다거나(『시천교종역사』) ▲ 제성분의(齊聲奔義), 재취당(在在聚黨)(1894년 7월 27일자 傳敎)하였다는 대목 등은 당시가 어셈블리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세기 후반의 관변자료에 자주 보이는, 봉취의둔(蜂聚蟻屯), 성군작당(成群作黨), 성당도회(成黨都會), 인중취소(引衆嘯取) 등의 용어(〈한국사 DB〉 참조) 등은 물론이고, 동학(군)이 전유한 起包⁷⁾, 또는 都會(都所)라는 말 또한 그 의미가 동일하다.
- 조선 건국의 주체들은 믿음(敎)보다는 배움(學)을 중시하는 유학(주자학=성리학)을 國是(國敎가 아니다)로 앞세우며, 통치체제와 지배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仁義와 民本, 仁政과 王道를 강조하는 조선왕조의 통치체제와 지배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국가 지배에 대한 조선 유생, 또는 민중들의 지지·동의기반이 상당히 넓었음은 물론이다 (김용옥, ‘조선사상사대관’ ; 오항령, ‘조선의 힘’). 왜란과 호란, 특히 19세기 들어 ‘민란(민요)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회·의거 문화가 발달한 것도 조선 왕조의 독특한 정치문화 덕분이었다. 농민전쟁 연구과정에서 民本과 仁政 등 정치문

7) 起包란 1894년 동학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이, “포접의 구성원들을 모두 모아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이나, 2차봉기 무렵부터는 관변측이나 유생들의 기록에도 “비적, 잔적, 남적, 호남적들이 起兵했다, 武裝暴動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자주 쓰였다.

화를 주목한 연구성과는 많았으나 동학 어셈블리의 등장배경으로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를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⁸⁾

- 조선후기 총액제 형태의 共同納制度, 都結化 경향 등으로 말미암아 19세기 후반 들어 부세문제와 관련한 면리·군현 단위의 집단 민원(民擾, 民亂)이 빈발했다. 임술년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민요는 발통→취회(도회)→등소→봉기(의거)의 과정을 거쳤는데, 동학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후반의 ‘都會’란 신분이나 직분의 차이를 넘어 말과 뜻을 나누고 모으는 집회, ‘義擧’란 공의와 공론의 실천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 점거와 담판, 무장투쟁이나 전쟁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義로운 擧事’를 총칭하는 말이었다. 19세기 후반 도회와 의거 과정에서 각종 어셈블리의 주체들이 앞세운 대의명분(통문, 계방, 상서, 원정, 등소)은 당연히 仁義와 民本, 仁政과 王道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탄압이 심해질수록) 자연발생적으로 폭력적인 (무장)시위(봉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은 都會라는 말과 더불어 都(會)所, 또는 都會地(處)라는 말도 자주 썼는데, 1894년 동학군의 어셈블리는 어찌보면 동리 단위의 작은 도회가 모여 군현과 감영을 넘어 더 큰 도회지, 즉 京師까지 넘보는 수준으로 확대·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당시 동학군은 독자적으로 京師直向(구병입경, 기병부경)하여 京師大都會를 조직(추진)할만한 정치 역량은 없었다. 그러나 4년뒤 독립협회가 주도한 만민공동회처럼, 만약 애국적 사민(충의지사)들의 抗日義旅가 형성될 수 있었다면 경사대도회는 전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었다. 9월 18일 북접교단의 기포령(招諭文)도 국왕직소(叫闔)를 염두에 둔 동원령이기는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남북접연대와 공주 점거투쟁’으로 투쟁 방향과 방법을 바꾸었다.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특히 1차 봉기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농민전쟁적(변란 또는 정변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전봉준 등 남접집단이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入道하고 布德하며, 設包와 起包(結黨과 布告와 蜂起)를 감행한 것은 아니었다. 남접집단(=중앙지도부)이 불췌비키당처럼 목적의식적으로 사건 초기(금구취회, 고부봉기, 무장포고?)부터 농민전쟁(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지도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남접집단이 건 북접교단이건,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 지도부가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전투력(무장)의 강화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 人衆勝天, 즉 입이 열이면 쇠도 녹일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都會와 義擧를 통해 가급적 많은 애국적 士民들을 모아 항일의려를 결성하는 것이었다. 2차 봉기의 때는 더욱더 그러했다.⁹⁾

8) 배향섭은, 동학군이 仁政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代執行하는 투쟁까지 전개했다는 점을 주목하였으나, (배향섭, 『새로운 민중사』 이후 민중사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19세기말~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8, 2022 등 참조) 이럴 때도 정치문화에 대한 정태적 이해가 가지는 문제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학 어셈블리 과정, 특히 패거-의거 논쟁을 포함한,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과정에서 유교적 정치 문화는 회복(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갑오 농민전쟁’의 배경으로 異端 東學과 더불어 ‘一君萬民論에 기초한 國王幻想’ 등을 강조한 조경달의 연구는 이런 점을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9) 사건사 정리,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과정에 대한 서술,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 1894년 당시 동학군은 기포할 때, 도소를 설치하고 도회를 열어 사람들을 모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주 점거투쟁도 결국은 작은 도회들을 통해 더 큰 도회를 개최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동학의 후예를 자처하는 천도교조차도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이후 자신들이 전유했던 기포니 도회니 하는 말을 스스로 폐기하고, 대회 혹은 총회(geral assembly)라는 말을 상용했다. 당연히 도회라는 말은 이후 死語化, 혹은 禁語化하여 도시(도회지, 도회열)라는 의미로만 한동안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그조차도 사라지고 말았다. 의거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무장투쟁(의병)만이 아니라, 춘추대의(天下爲公)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은 의거이다. 필자가 굳이 민회, 혹은 의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도회·의거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다시 우금티 도회를 제안한다」(『역사비평』, 2015년 봄호)에서 밝혔듯이, 1894년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꽃을 피운 도회·의거(K-assembly)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이다.

■ 공주가 가진 도회지(都會地: 都會之處)로서의 중요성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당시 공주는 충청감영(錦營)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호남대로상의 요충이자 호남의 관문이었다. 특히 호남 동학의 중심지인 삼례 등 전주 이북지역은 공주의 광역시장권 내에 속한 지역이었다. 당시 북접교단이 1892년 10월 공주 도회에 뒤이어 11월 삼례에서 도회를 개최한 것은 양 도회지가 매우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2백리 내외, 이틀길), 淵源도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¹⁰⁾ 게다가 공주는 교조신원운동 직전 시기까지 최시형이 은거하며 호남 좌우 편의장(윤상오, 남개천)을 매개로 호남 포교를 진두지휘한 곳이었다. 2차 봉기 시기 대원군 밀지계획의 주도층이나, 남북접 동학군, 을미의병(홍주, 회덕의병) 등이 공주 점거투쟁을 기획한 것 등도 공주가 가진 都會地로서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는 1892년 10월 공주(도회 개최)에서 시작되어 1894년 공주(점거투쟁 실패)에서 일단락되었다.
- 1890년대 초반, 호남 포교가 왕성했던 시기 공주의 궁원(= 운궁리·장원리 일대; 달동 = 쌍달리 일대)과 薪坪(薪里: 석송리 싯뜰)¹¹⁾ 일대는 호남 동학 교세가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호남 포교의 전진 기지(station)이기도 했다. 당시 최시형은 호남대로상에 입지한

명쾌한 정리, 쉽지 않았다. 도회·의거적 성격, A/O 투쟁적 성격 등 공통점은 어느정도 설명했으나, 그 차이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것, 쉽지 않은 과제였다. 2차 봉기 시기 농민전쟁적 성격이 약화된 것, 주체의 변혁성은 물론이고 개방성(확장성)이 약화된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나, 버거울 따름이다.

10) 공주와 삼례 도회 이후 상당수의 동학도(군)는 교단의 해산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주, 옥천, 황강, 청주(서영), 신도안 등에 모여 활동을 지속하다가, 12월 1일경 충청감사에게 ① 飭令忠淸道內農民一體 歸依東學事 ② 嚮當有逮浦東學之令地方官吏中 有收賂于東學人者 今嚴令該收賂官吏 可使爲刷還事 ③ 監司周巡偏村僻邑 自爲摘奸事 등 3개 조항을 요구하였다.(『일지』, 8쪽)

11) 표영삼은 공주 싯평(薪坪)을 사곡면 싯영리라 추정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싯평은 현재 '만세뜰'이 입지한 정안면 석송리 싯뜰이다. 석송리와 운궁리 주민들은 궁원도회 때는 물론이고 3·1운동 때도 맹활약을 펼쳤다.

정안면 신평 등지에 은거하며 호남 포교를 진두지휘했다. 최시형이 공주 출신 윤상오와 호남 출신 남개천을 호남 포교를 위한 (좌우)편의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무렵 전봉준을 비롯한 남접집단의 핵심인물들도 상당수는 공주를 방문하여 최시형을 접견하고 공주지역 동학 지도자들과도 교류(社會的 聯網)했을 것이라 짐작된다(〈김낙철역사〉 참조). 윤상오, 윤상호 형제를 비롯하여, 임기준, 홍재길, 달동 접주 장준환, 영학회장 이화삼, 상주 동학교주 김주희 등도 모두 이곳(무성산) 인근에 거주하던 접주들이었다.¹²⁾

- 공주 점거투쟁 직전 시기 공주와 호서 중심으로 활동한 임기준(도접주 안교선)¹³⁾ 집단은 남접집단과는 별개로 1894년 3월경부터 활발한 활동(3월 14일 공원도회 개최, 대교유회 파훼)을 벌였다. 임기준 집단은 1894년 3월경부터 공개적인 활동(利仁 都會=起包)을 시작했으며, 갑오변란(일본의 경복궁 쿠데타) 직후에는 각지에 민회소¹⁴⁾를 설립하기도 했다. 8월 1일 공원도회와 건평유회를 동시에 개최했던 1만여명의 동학군과 유회군은 그 다음날 공주 부내를 점거(진입)한뒤 충청감사에게 民狀과 儒狀을 올렸다.¹⁵⁾ 곧바로 부내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공주지역 동학군은 십수일 가량 금강변에 둔취하며 집회와 시위를 지속하였다. 당시 임기준 등이 이끌던 동학군은, 부여(민씨가), 노성(윤씨가) 유생들과 함께 대원군 밀지, 조가 밀교에 의거하여 항일의려를 형성한뒤 기병부경(경사직향, 구병입경)을 실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제순을 통해 대원군 효유문(8월 24일경)이 전해지자 임기준 집단은 9월 9일 충청감사와 安民約條를 체결한뒤 자진 해산했다(〈동도접주답서〉 제출; 『뫼뫼문서』). 이런 공주 지역의 동학세를 시야에 넣지 않고 공주 점거투쟁의 성격과 의미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논산에서 전봉준과 회동한 공주창의장 이유상(=李裕馨)은 부여 민씨세력이 항일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서울에서 영입한 都事(?) 출신의 ‘火砲領將’ 이었다. 하지만 8월 1일 건평유회 직전 시기 부여 민씨의 이탈, 그리고 뒤이은 임기준 집단의 배도귀화(자진해산?)로 말미암아 항일의려가 해체되자, 전봉준과 연합하여 공주 점거투쟁(특히 1차 접전 시기 이인싸움 주도)에 참여하였다. 어설픈 가정이기는 하나, 당시 남북접 동학군의 기대대로 공주와 부여, 노성, 정산, 청양 등지에서 최익현을 창의영수(회맹주)로

12) 공주에는 임기준(안교선·홍재길) 집단 이외에도 달동 장준환, 그리고 회덕(공주 박운리 강채서=강건회), 유성(최명기), 유구(최한기), 정산(김기창) 등지에 막강한 세력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공주 점거투쟁 시기 북접교단(각포 통령 손병희)의 휘하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3) 임기준 집단은 법헌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包(設包)가 아니었으므로, 大接主를 칭하지 못하고 都接主(안교선), 首接主(임기준, 홍재길)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 <한국사 DB>를 검색하면 ▲ 보은도회 시기 민회소(=도소) 사례를 비롯하여, ▲ 『금번집략』에 보이는 이인 및 진천 민회소 사례, 그리고 ▲ 1894년 7월 고성지역의 경우, 동학군과는 무관하게 군민들이 民會所를 설립한뒤 민원해결 투쟁을 전개한 사례 ▲ 안태일이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관민)공동회를 민회소라 칭한 사례, ▲ 1902년 성진 민회소 사례 등이 확인된다. 甲午十月二十日 榜示文(天安)에도 민회소, 창의소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를 조직한 주체는 공주와 달리 천안의병 세력이었다. 巡撫先鋒陣騰錄 > 巡撫先鋒陣騰錄 第一 > 甲午十月二十日 榜示文 天安

15) 부여 민씨세력의 이탈로 이유상과 이영해가 이끄는 건평 유회 집단은 소수만이 부내 진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장과 민소를 동시에 제출했다는 사실은 공주 지역에서 항일연대 활동이 나름대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여 의진(의려)이 형성될 수 있었다면(은송, 광김, 노운 등 호서 老論家의 義陣 참여), 공주 접거(A/O) 투쟁의 향배는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 <이유상 상서>와 <구완희 일지> ▲ ‘호서의병소’ 명의의 통문(<통사은진의병소>)과 <의병소 조약>¹⁶⁾ ▲ 수춘접(도소)에서 일본군이 압수한 ‘호주대의소’ 명의로 ‘公州湖西九接’ 앞으로 발송된 거의 통문 등은 공주 접거투쟁 직전 시기 공주와 호서지역의 항일의려 형성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들이다.

■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 1차 봉기(무장포고 이후) 시기 남접집단이 주도한 호남지역의 ‘농민봉기’는 농민전쟁적인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1894년 전국 각지에서 각자기포한 동학군의 투쟁(사건)들은 남접 지도부가 호남 동학군을 이끌고 수행한 내전이나 혁명, 즉 특정한 중앙 지도부가 통일적인 사상과 강령에 기초하여 주도(지도)한 일괴암적인(monolithic) 단일 사건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우연과 필연의 교차 과정에서 등장한 일종의 다사건(多事件: eventful)이었다.¹⁷⁾ 엥겔스 류의 농민전쟁론은 1894년 사건을 남접집단이 주도한 1차 봉기로 한정하는 경우, 나름대로 의미있는 분석 방법이자 서사틀(歷史像)일 수는 있으나, 이를 1892년 교조신원운동 때부터 1904년 갑진민회운동까지 이어진 동학 어셈블리 과정의 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남접/호남/전투 중심 사건사 정리의 문제점>

-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은 남접집단과 호남 ‘농민군’을 중심으로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를 포함하여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의 사건사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 전봉준 등 남접집단이 주도한 각종 사건(삼례도회, 금구취회, 고부봉기, 무장기포)들은 동학 어셈블리 과정을 한 사건이기도 하다. 삼례도회 시기부터 남접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특별히 남접집단만 변혁지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여겨진다. 예를 들면, 금구취회(중간 집결지; 영남의 밀양취회도 동일) 구성원들의 반발은 자신들이 보은에 도착하기도 전에 큰 성과 없이 도회를 해산한 것 때문이지 노선의 차이나 불만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시천교종역사』가 적절히 정리했듯이, 교조신

16) 기존 연구들은 이 문건(무주관아 접수 문건)을 생산, 발송한 주체를 전봉준 등 남접집단이라 추정했으나, 오류임이 분명하다. 위 문건들이 수록된 『隨錄』은 茂朱官衙에서 중앙의 公文, 全羅監營의 通知文, 그리고 각 관아에서 보낸 통고 등을 모은 책자이다.

17) 多事件(eventful)이란 ‘사건으로 충만한’이라는 뜻인데, 단일한 사건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연쇄적인 사건일 경우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일종의 분석이론이자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다사건 분석은 인과적으로 얽힌 사건의 누적적 효과가 구조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채오병·전희진, 「다사건 분석」, 『사회학총서 10 사회사/역사사회학』(다산출판사, 2016), 149쪽 참조.

원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남접집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원과 성격을 가진 포접집단(聚黨·結黨·作黨)이 기호와 삼남 일대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는 1892년 10월 공주 도회 때부터 활성화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1893년 봄 보은도회 무렵에는 법헌과 보은 법소를 중심으로 일종의 교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시형이 각포의 설립(設包)과 대접주를 공인한 것¹⁸⁾도 1893년 3월 보은도회 무렵이었다. 보국안민의 종지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포한 집단은 물론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이 이끌던 남접집단이었다. 이들은 고부의 말목장터 도회(고부 봉기)를 기점으로 하여 더 큰 도회, 즉 백산도회(3월 26일)를 조직함으로써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남접집단은 3월 20일 무장 포고(宣戰布告가 아닌 大義布告) 이후 호남 동학군을 이끌고 호남 각군을 돌며 行進(퍼레이드)을 벌인뒤 4월 27일 경 전주성을 점거하였으나, 관군의 탄압과 외국 군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5월 8일 ‘전주화약(폐정개혁 = 안민약조)’을 체결한 뒤 자진 해산했다.
- 무장포고 이후의 사건사를 전체를 정리하면 ① 무장포고 → 백산대회 → ② 호남 각군 행진 및 관아 점거(assembly/occupy 투쟁) → ③ 황토현·장성 싸움 → ④ 완산 점거 및 농성전 → ⑤ 경군의 공세 강화, 청국군 파병 → ⑥ 정치 담판 및 협상(호남동도=동학유생 명의 上書, 願情) ⑦ ‘전주화약’ 체결과 자진 해산(안민약조 체결, 무기 반환, 歸化=化民·良民化) ⑧ 도회 개최 및 도소 설치(남원 등 점거, 도회 개최, 도소 설치, 폐정개혁 활동 전개)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1차 봉기도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의 산물로서, 발통 → 취회 → 등소 → 봉기의 과정을 거쳤다.
- 1차 봉기를 사건사적으로 정리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기존 연구들처럼 전투/점령이라는 코드보다는 집회·시위(행진=퍼레이드)/점거·농성이라는 코드를 더 중시하고 주목해야 한다. 전주성을 빠져나온뒤 각지 동학군은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도회를 개최하고 도소를 설립한뒤 자율적으로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의 도소는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협의를 통해 집장소보다 훨씬더 자율적인 성격이 강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 <사발통문>(군현 단위 發通: 전주성 함락과 경사직향 구호 표방, 그러나 배포 범위는 고부) ▶ <고부봉기>(군현 단위의 도회와 등소와 봉기) ▶ 무장 포고(大義布告: 감영 및 전국 단위? 發通=布告 형식) ▶ 백산대회(都會·義舉의 시작: 濟衆義所 설치,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총참모, 영술장 선출, 결의 채택, 시위행진에 앞선 檄文 발표) ▶ 시위행진과 관아 점거(A/O 투쟁의 전개: 군수 축출 및 동료 석방, 軍器 및 錢穀 탈취) ▶ 황토현 접전(4월 6일 감영군 및 별초군, 보부상을

18) 於是 師命差各包大接主及包名. 忠慶大接主任奎鎬, 淸義大接主 孫天民, 忠義大接主 孫秉熙 ……(侍天教宗 釋史 第二編下 > 第十章 爲師訟冤)

동원한 해산 시도. 총칼로 승부를 결하는 전투가 아닌 명분·기말몸 싸움. 양측 사망자 소수, 감영군 기싸움에 밀렸다) ▶ 초토사 임명 및 경군 파견(4월 6일 군산, 7일 전주 도착, 동학군 剿討 활동 개시, 물리적 위협) ▶ 호남 동학군의 A/O 투쟁 확대(점거 군현 및 동학군 급증: 제중의소 혹은 호남동도창의소 명의 원정 및 개혁안 제출, 주문 영부 활용한 동학식 의례, 습진 훈련, 계군호령 발표 및 실행) ▶ 호서 등지로의 各自起包 확산(각지 포접 단위로 동학 도중을 모으는 행위 확산) ▶ 청국군 원병 요청(고종과 민씨세력의 위기의식 고조, 정변 가능성 높았던 시기) ▶ 완산 점거 및 농성전(封山 점거 농성: 전남도청·명동성당·광화문 점거처럼 군사적 점령이 아니다. 경군의 공세(포위)로 인한 고립, 북접교단의 지지 확보 및 항일연대 형성 실패) ▶ 경군의 포위 공격 및 청국군 도착 소식(경기전 포격 = 봉산 진입 및 공격) ▶ 도망자 속출, 군현내 귀환자 체포 ▶ 초토사 및 전라 감사와의 정치 담판 및 협상 ▶ ‘전주화약’ 체결 및 자진 해산(폐정개혁 요구 수용, 安民約條 체결, 이후 관민상화를 위한 집강소 설치)

- 무장포고(道 단위의 發通=布告)와 백산도회(취회)를 통해 형성된 남접집단의 濟衆義所, 湖南東徒倡義所는 자연스럽게 호남 단위의 폐정을 문제삼는 호남 단위의 ‘倡義(義舉)’ 조직(=義陣)이었다. 행진(대오)를 이끄는 장수를 영솔장이라 호명한 것은 동학군의 주요한 활동이 행진이었음을 시사한다. 전봉준은 공주점거투쟁 시기에는 (총)大將이 아니라 兩湖倡義領袖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창의군의 領袖(일종의 會盟主)라는 뜻이지 중앙지도부의 수장(總大將)을 뜻하는 호칭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손병희도 최시형을 대신한 동학교단의 統領(各包=大接主 총괄 지휘)일 뿐이었다. 2차 봉기 시기 각자기포한 동학군을 지휘 통제한 콘트롤타워나 ‘농민전쟁의 중앙지도부’는 없었다.
- 동학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사건 지도)은 1차 봉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34곳(호남 25개, 호서 5개, 영남 4개 사건), 2차 봉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80곳(호남 19개, 호서 30개, 경기 9개, 영남 8개, 황해 8개, 강원 6개) 등 모두 114개 사건을 지도에 표기하였다. 이 가운데 사건명칭을 병기한 것은 모두 36개(1차 9곳, 2차 27곳)인데, 1차 봉기 시기의 무장 ‘포고(기포)’와 백산 ‘대회’, 그리고 2차 봉기 시기의 용인 김량장터 ‘집결’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가 전투(24개 사건) 혹은 점령(3건: 고부관아, 전주성, 안성관아) 관련 사건들이다. 이는 전투 중심의 사건사 서술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황토현 전투와 장성 싸움(충돌사건)은 전투라는 표현보다는 행진 과정에서 벌어진 진압군과의 충돌사건이다. 총칼이 사용된 무력충돌(接仗) 사건이기는 하나 주요한 측면은 명분과 기세 싸움, 특히 말·몸 싸움이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전투, 교전과는 달리, 양측의 사망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황토현 싸움은 영병 및 보부상과의 충돌사건이므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는 생각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성전투 때는 경군측의 선제 공격(포격)으로 말미암아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주성 함락(점거) 시기 관군과 동학군 사이에 물리적 충돌사건은 거의 없었으나, 그 이후 농성전 때 경군이 또다시 성안으로 대포를 쏘서 인명피해가 컸다. 1차 봉기 시기 동학군 전사자가 많이(수십, 수백명 규모) 발생한 것은 경군과의 접전, 특히 장성과 전주성 싸움 때였다.

<남북접 갈등·대립설의 진상>

- 농민전쟁론자들은 사건사적으로 정리할 때, 남북접 집단(지도부)의 갈등과 대립, 특히 북접교단의 견제와 불참 문제를 유별나게 강조한다. 물론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 남북접간의 갈등은 어느정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남 단위에서 전개된 1차 봉기 시기에는 양간의 갈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자간의 갈등은 실천론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지 척양척왜와 보국안민이라는 목표는 동일했다. 양자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단을 치달아간 것은 남접집단이 9월 10일경 쿠데타 세력과의 연계 하에서 삼례 재기포를 단행하고, 이와는 별개로 북접교단이 9월 18일 肅立自生 自境保衛, 또는 국왕직소를 핵심 내용으로 한 기포령(招諭文)을 내리면서부터였다.¹⁹⁾ 하지만 이 조차도 9월 그믐 무렵 남북접 연대가 성사되면서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았으나, 『천도교회사초고』와 『시천교종역사』에 보이는, ‘南伐旗’ 또는 ‘전봉준의 참회(회개?)’ 등을 운운한 대목은 남북접간의 갈등과 대립을 논의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할 쟁점이다. 특히 전봉준이 ‘우금티 싸움’에 앞서 많은 접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신을 師門·國家·國民의 죄인이라 규정했다는 대목은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에 기초한 서사 가운데서는 맥락있게 언급하기가 곤란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동학 어셈블리의 큰 흐름, 특히 전봉준이 스스로를 ‘동학을 호호하는 접주’라 규정한 진술 등을 감안하면 전혀 근거없는 정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접 연대(조건부 연대) 이후 양측 지도부가 합의·설계한 공주 점거투쟁은 최시형의 暴擧中止 革心改圖 諭示에 기초한 것이었다.

<동학 어셈블리의 전체상 그리기>

-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 남접이든 북접이든 기본적으로는 보국안민이라는 동학의 종지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강조해야 한다. 물론 특정 시기, 특정 주체들에 의해 농민전쟁이 전개되었다거나, 내전이나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잠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럴 경우도 모든 개별 사건들은 동학 어셈블리의 큰 흐름

19) 손병희, 이종훈, 이용구 등 황산도소 세력도 쿠데타 세력(대원군 밀사들: 나성산=허엽)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취조 과정에서 ‘이용구가 종로 만민소청의 소두를 자청했다’는 언급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운데서 그 성격과 의미가 구명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1894년 어셈블리는 물론이고 1899년 고부·흥덕·무장 등지의 英學會(=英學軍) 운동,²⁰⁾ 1904년 동학교단 세력이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한 갑진민회운동 등의 성격과 의미를 따질 때도 모두 보국안민이라는 동학의 종지를 실천하기 위한 동학 어셈블리 과정의 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동학 어셈블리 사건과 사건의 연쇄 중첩 과정에서 동학, 동학군 정체성 변화했다. 하지만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는 도회=민회를 통해 보국안민의 종지를 실천하기 위한 어셈블리 투쟁이었다. 요컨대, 英學會가 만민회 형식의 회의(=도회)를 개최하여 고부군수의 탐학을 규탄했듯이, 進步會도 연설회 형식의 민회를 개최하여 민중(인민)의 충의를 모으고, 그에 기초하여 다양한 개혁 요구(獻議)를 실천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동학의 종지를 실천하는 활동에 다름이 아니었다.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이후의 사건사를 정리할 때, 1898년 독립협회가 경사에서 주도한 만민공동회 활동, 혹은 독립협회의 지방지부(공주 지부도 존재했다) 활동 등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英學會長(영학당 수령) 李化三 등이 고부 관아를 점거한 뒤 萬民會(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회의 방식대로 민회를 진행하여 군수의 실정을 공박하려 했다는 사실,²¹⁾ 또는 갑진민회운동 시기 손병희, 이용구 등 동학교단 세력(대동회, 중립회, 진보회)이 윤시병 등 만민공동회 주도세력과 손잡고 민회(=의회) 및 정당 건설 투쟁을 시작했다는 사실 등은 독립협회운동(특히 헌의6조 실천 요구, 의회 설립운동)이 그 이후의 동학 어셈블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²²⁾
- 공초에서 이화삼은 자신을 학부 주사 출신의 이해덕이라 진술했으나, 신분 세탁을 위한 진술이라 여겨진다. 이해덕은 학부아문 주사, 학부 참서관 등을 역임한 정읍 이씨

20) 1896년 8월경부 최시형은 상주 고대촌에 은거하고 있었다. 이 무렵인 10월경 흥계관, 손병규, 최익서가 예물을 가지고 내방하여, 손화중 포에 속했던 9개 대접을 토대로 새롭게 設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시형은 여러 이유를 앞세우며 때를 기다릴 것을 조언·지시, 만류·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성주현, '고창 동학' 관련 논문 참조). 1894년 어셈블리 이후 계조직(首契長 최일서) 형식으로 9개 大接을 세운 것은 앞서 언급한 손화중 포의 중심인물들이었으나, 1898년 9월 경 이화삼이 서울에서 내려와 영학회 활동(영학운동, 영학군 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손화중포를 중심으로 영학회 활동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李化三(학부 주사 李海德으로 신분 세탁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라 여겨진다.

21) 英學會(영학당)는 고부, 흥덕, 무장, 고창 등 손화중포의 영향 아래 있었던 동학도들이 이화삼(영학회장)을 영입하여 만든 조직이라 여겨진다. 이화삼이 붙잡힌 뒤 영학당에서는 1899년 5월 4일 흥덕군에서 호남공동대회(湖南共同大會=호남 단위의 共同會=萬民會)를 열고, 이화삼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화삼은 석방되지 않고, 5월 27일 광주로 극비리에 이송되었다. 이화삼은 최시형이 은거지(윤상오 형제의 세거지: 이후 기독교도가 됨)였던 공주 섯뜰(薪里, 薪坪) 출신으로 일찍이 상경하여(학부 주사 역임?) '英學(기독교와 洋學)'을 접한 뒤, 고부, 흥덕, 무장 등지에서 '北道人(北接道人?)'들과 함께 영학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영학운동의 주체(=英學軍)들은 호남의 북접계 접주인 김낙철을 내세워 設包를 요청하였으나, 상주에 은거 중인 최시형은 대접주인 손화중의 시신도 거두지 못했다는 등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김낙철역사』)

22) 손병희는 3·1운동 시기 심문 과정에서 1894년 동학 어셈블리가 정권 전복(타도) 투쟁이었다는 점, 몇 년 뒤 서울에서 진행된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투쟁을 주의깊게 지켜봤다는 점 등을 밝힌 바 있다.(『심문조서』, 참조) 동학 어셈블리와 관련한 진술을 몇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문> 그 무렵 동학의 主領은 누구였는가. <답> 崔時亨이 主領이었으나, 동인은 노령이었으므로 나를 '대통령'으로 천거하여 사실상 내가 주령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 奎羅道에서 奎璠準이 일어섰으므로 同人과 연락을 취했었다." <문> 그때 피고 등은 새 정부를 세워서 어떤 정체로 할 작정이었는가. <답> 그 당시는 정체를 논할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만 착실한 사람을 천거하여 정부를 조직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조선왕조를 폐지할 목적은 아니었다."

아전 가계 인물로 갑오개혁 이후 실무 관료로 신학제 개혁(학부대신 박정양)에도 참여했다.<<한국사 DB>> 참조)

公州薪野里居人 移居京中爲十年之久(1880년대 말 上京?) 而建陽元年(1896년) 三月一日 以李海德(이화삼과 동일인물일 가능성 거의 없다)名 爲學部主事 五朔後見遞. 丙申(1896년) 四月 以耆老所屯土稅錢 逋欠事 被囚於古阜郡 (중략) (1898년) 陰曆九月初八日 因私事上京 數三日 往觀於萬民會 而十月初八日夜 在仁化門前 一次演說於會中이온바, 十月晦日 還鄉居 四五日 往問隣洞宋觀五家大祥時諸客多會 以本官家誤政議論甚多. 曰稅錢毒蜂時負錢入官庭 者答之 (중략) 矣身發論 以爲如是則當自民間公義歸正云(중략).²³⁾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이후 1904년 갑진민회운동을 통해 다시 동학 어셈블리가 활성화되었다. 갑오 어셈블리와 만민 어셈블리를 주도했던 일진회 세력은 연설회(都會·萬民會) 형식의 집회를 통해 세를 불려나갔다. 1904년 12월 통합 일진회 성립을 계기로 이들 집단이 輔國安民이 아니라 賣國(背國)安民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갑진민회운동이나 일진회 활동을, 민족↔반민족, 애국↔매국의 단순 잣대로 평가절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²⁴⁾ 왜냐하면 1904년 갑진민회운동 때부터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시점까지 10여만 이상의 회원들을 보유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斯世·斯民을 위한 輔國安民之道(斯學)이라는 점이다.²⁵⁾ 이런 동학의 정체성(종지)은 1892년부터 시작된 동학 어셈블리 과정, 특히 1894년 동학군의 기포(도회·의거) 과정에서 확립되고 확산되었다. 하지만 갑진민회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특히 북접교단의 실세들이 천도교를 창립(동학의 종교화)하면서부터 동학의 정체성은 급격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일진회의 종속적(친일적) 문명화론, 혹은 동양평화론²⁶⁾에 기초한 보호조약 찬성론, 이

23) 「한말 영학당(英學黨) 이화삼 등 공초(供草) 보고서(흥덕군난민취초사안)」(광무3년 1월 7일, 明査官 장성군수 김성규 → 관찰사 각하, 『한국학보』 10권 2호, 1984, 245쪽.

24) 일진회운동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해석과 평가, 교과서적 역사인식의 아킬레스건이다. 일진회 운동을 어떻게 가르쳐야할 것인가에 대한 김종준의 연구, 흥미롭다. (김종준, 「역사수업에서 일진회 다루기」, 『歷史教育論集』 第73輯(2020. 2) “일진회는 그 활동의 민주주의적 측면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사례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진회 활동에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논자들이 민주주의의 전근대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외면받는 이유는 포퓰리즘(인민주의)적 한계가 뚜렷하며, 또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내심 불편하기 때문이다.” 김종준에 따르면, 대한제국이 강력한 군주권을 배경으로 역둔토 등의 토지를 국유화하자 일진회는 이들 분쟁지의 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을 흡수하여 회세 확장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25) 在京城 一等領事 內田定槌는 많은 증인 심문과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동학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대저 동학이란 지금으로부터 약 34~35년 전 경상도 慶州人 崔濟愚가 처음 창시한 유사종교로서 그는 <<東經大舍>>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그 교리를 창시했다. 이 교의 본령은 ‘敬天守心 正氣率性’으로서 즉, 輔國安民의 道라고 한다.” 전봉준도 회심과정에서, ‘동학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위와 동일하게 답변했다.

26)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황성신문』은, “일본과 청국 두 나라와 연합·동맹하고 힘을 합쳐 어깨를 견주며 북소리를 울리고 용맹하게 나간다면, 시베리아 철도를 파괴하고 우랄 산맥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우리 동양의大局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동양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윤희, 「1909년 대한제국 사회의 ‘동양’ 개념과 그 기원」, 『개념과 소통』 제4호(2009. 12), 118쪽. 『황성신문』은 당시 ‘동양’의 동질성의 하나였던 유교를 통해 ‘동양’을 의미화했을 뿐 아니라, 러일전쟁 이후에는

후의 정합방론, 특히 교조신원운동과 교단화에 뒤이은 동학의 종교화(천도교, 시천교; 각종 신흥종교), 혹은 교단(종파)의 분립과 난립 등의 과정에서,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민중의 마음(기쁨의 정동, 긍정적 감응; affect)을 크게 움직였던 동학은 급속히 소멸되었다.

-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를 사건사적으로 정리할 때 주목해야할 키워드는 기포와 도회(민회·의회), 즉 어셈블리(모이기/모으기) 그 자체이다. 필자가 선행연구에 뒤이어 후속연구에서도 주목하고자 한 것은, 도회의거 문화의 지속과 변용 문제이다. 예를 들면, ▲ 보은도회 주체들이 자신의 집회를 서양의 민회에 비유했다는 사실 ▲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이 동학 도중을 모으는 행위를 기포라는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도회(도소)라는 말을 전유했다는 사실 ▲ 공주 점거 투쟁 시기 호서도회를 개최하여 정치담판을 벌이려 했다는 사실 ▲ 정인덕(배재학당 교사, 내무 주사) 등 쿠데타 세력이 동학지도부를 설득하여 상하원 설립 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다는 사실 ▲ 전봉준이 심문과정에서 명망 있는 선비들이 주도하는 습議法에 의거한 정치를 언급했다는 사실 ▲ 영학회장 이화삼이 萬民會를 개최하여 고부군수를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英學會員(=英學軍)²⁷들이 이화삼의 석방을 요구하는 ‘호남공동대회=공동회=만민회’를 개최하려 했다는 사실 ▲ 손병희(진보회, 통합일진회)가 독립협회 세력과 연대하여 민회(의회)와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사실 등은 동학 어셈블리가 가진 사건사적인 의미와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어셈블리 투쟁을 통해 인민(민중)이 보국안민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나서는 과정, 달리 말하면 조선왕조 사회가 회복(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하는(대파국)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사건사 정리 방법: 다사건적 분석방법>

- 농민전쟁(혁명)론의 성과와 성취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다. 다만 1894년 동학군의 起包와 都會·義擧, 특히 10수년간 고조와 퇴조를 반복한 동학 어셈블리의 다사건적(eventful) 성격을 강조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농민전쟁이라는 역사 서술 개념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우 공주 점거투쟁은 물론이고, 십수년 동안 시기와 장소, 주체와 목표를 달리하며 전개된 동학 어셈블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어려질 수 밖에 없다. 공주 점거 투쟁은 물론이고, 1894년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동학군의 각종 투쟁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려면 농민전쟁이라는

가족관계에 기초한 유교적 도덕주의로 ‘동양 삼국’의 관계의 표상했다는 것이다.(위의 논문, 121-122쪽) “러일전쟁은 한·청·일 삼국이 형제의 우애로 연합하여 유교적 가치를 지킨 빛나는 경험으로 기억되었다”는 김윤희의 지적(위의 논문, 124쪽)도 흥미롭다.

27) 기행연의 『홍재일기』에 ‘英學軍’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영학회는 동학군처럼 전통적인 契組織을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원제에 기초한 包接 組織이 1894년 어셈블리 이후 서서히 해체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단일한(배타적인, 일과암적인) 관점이나 서사틀(분석틀)보다는 다사건적인 분석방법²⁸⁾이 훨씬 더 유용하다.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이후 관변측이나 유생측 기록은 東學 再起(包)나 更起(包)의 주체를 흔히 東學 ‘餘黨’ 이나 ‘殘黨’ 이라 호명했다. 물론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에 기초해 보면, 그런 표현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이후의 동학(東徒)을 언급할 때, 위와 같은 표현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1월 27일 무렵 자진 해산을 선언한 것은 남북 접 지도부이지 모든 동학군이 다 背道歸化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변측이나 유생들의 표현처럼, 1899년의 영학회나 1904년 갑진민회 운동에 이른바 ‘甲午漏網之匪類’가 상당수 가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운동 주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새로운 정세와 조건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 또는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분발분투한 것이지, 과거에 매여, 뭔가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餘黨·漏匪·餘孽이 아니었으므로, 전향이나 변절이라는 표현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
- 1892년 10월경부터 1904년 10월경까지 고조와 퇴조를 거듭한 동학 어셈블리는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한 기포(제기·쟁기)이자 도회·의거 투쟁이었다. 따라서 공주 접거투쟁을 포함한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사건사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1892년 10월경부터 1904년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각자기포한 동학군이 전개한 각종 투쟁, 즉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우연과 필연의 교차 과정을 전체적으로 시야에 넣어야 한다. 공주 접거투쟁의 사건사를 정리하면서 다사건적인 관점이나 분석방법을 강조한 이유도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성격과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서술하기 위해서이다.
- 동학 어셈블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특별히 남접·호남 동학군(=변혁세력) 중심의 단계적 발전론, 또는 계승·발전론을 경계해야 한다. 교조 신원운동과 고부봉기 시기를 전단계로 간주하며, 1894년 동학 어셈블리를 제1차 농민전쟁 시기(본격 단계) → 집강소 체제기 → 제2차 농민전쟁 시기로 나누어 사건사를 재현하는 경우, 사건사의 전체 흐름, 또는 매 시기에 발생한 개별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진다. 십수년 동안 고조와 퇴조를 반복하는 과정을 사건사적으로 촘촘히 재현해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조선왕조 사회가 파국으로 치달았는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과 기미가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구명해야 한다.

28) 다사건적인 분석방법이란, “구조적 속성으로부터 곧바로 어떤 결론(특히 사건의 성격과 의미)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사건의 연쇄를 중시하며, 그 사건 연쇄가 갖는 예측불가능성, 혹은 우연성까지를 포용”하는 사건사 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 또는 continuous time event history models)이다. 채오병·전희진, 『인과성 구조 사건』, 한국사회학회 편, 『사회학총서 10 사회사/역사사회학』(다산출판사, 2016), 141-167쪽 참조.

■ 동학과 1894년 어셈블리의 연관성

- 동학이 농민전쟁의 지도사상이나 강령이였는가라는 질문은 일종의 우문이다. 동학을 천관이나 신관, 또는 내수와 수행을 중시하는 종교라 전제한뒤, 양자의 관련성을 따지는 작업도 마찬가지로이다.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는 남접이든 북접이든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 그 자체였으며, 동학군은 이런 과정에 참여한 東學(包接)徒衆(都中)이다. 게다가 1894년의 동학군은 특정한 사상과 이념(教義·教理)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信徒(教徒)가 아니라, 어셈블리 과정, 즉 사건과 사건의 연쇄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부의 사상과 노선, 동학군의 지향과 요구가 변혁적·근대지향적인가 아닌가 보다는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과정에서 동학, 혹은 동학군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더 주목해야 한다.
- 1894년의 동학은 경전에 보이는 교조나 교주(최재우나 최시형이나 손병희)의 동학이 아니다. 동학 어셈블리에 참여한 동학군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한 사상이자 행동강령이다.²⁹⁾ 동학이 1894년 동학 어셈블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동학 어셈블리가 동학과 동학군을 만들었다. 1894년 동학 어셈블리 당시의 동학은 이전의 동학과 그 성격과 의미가 달랐다.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을 한다는 것은 전봉준이 심문과정에서 밝혔듯이 ‘수심정기(경천)하여 보국안민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전봉준이 큰 선생으로 모신 최재우의 화두도, “보국안민(輔國安民) 어찌 할꼬” (『동경대전』 포덕문)였다.
-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확산된 차이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이 동학과 동학군을 형성했다. 1892년 10월경부터 확산된 동학 어셈블리, 민중들의 긍정적 감응을 확산시켰다. 모이기/ 모으기 투쟁의 주요한 계기와 동력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만이 아니라 주문과 부적, 각종 동학식 의례와 의식들이었다. 동학은 동학군을 모이고 모은 힘이자 디딤돌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짐이자 걸림돌이기도 했다. 동심의맹한 동학군의 오도 의식, 각종 동학식 의례와 의식들, 동학군의 척사유생이나 일반 민중들의 연대와 참여를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도 수행하였다.³⁰⁾

29) 동학은 믿음을 중시하는 教가 아니라 學 즉 배움을 중시하는, 지극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현실주의적이며 실천적인 사상이었다. 전봉준은 회심에 참여한 일본영사가 “東學이라는거선 何主意 何道學고”라고 질문하자 “守心하야 忠孝로 本을 삼아 輔國安民하잔 일 이외다”라고 답변했다. 守心(修心: 正氣·敬天)은 보국안민을 위한 기본자세이자 일종의 수행론(수양론)이다.

30) ‘輔國安民計將安出?’, 이에 대한 큰 선생 최재우의 자문 자답이 흥미롭다. 모여든 유생(학생)들이 서도나 양학으로 하오리까라고 질문하자, 최재우는 슬며시 말꼬리를 돌려 영부와 주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왜 그랬을까? 『동경대전』 포덕문에 보이는, “이 세상에 편답주류(遍踏周流) 하다가서 여진 사람 만나거든 시운시변(時運時變) 의논하고, 백 년 신세 말하거든 이 글 주고 결의(結義)해서 봉우유신(朋友有信: 同心義盟?)하여 보세” 등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면, 최재우는 동학을 창시할때부터 어셈블리를 보국안민의 주요한 수단이자 동력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부와 주문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감응과 신명을 돌구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학 어셈블리 과정, 즉 사람들을 모으고(布德) 일으키는 활동(起包)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無爲而化’나 ‘다시개벽’ 담론이 아니라 영부와 주문,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창

- 동학과 동학 어셈블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학은 최제우(敎祖가 아니라 선생을 자처했을 뿐이다)가 창안한 종교(가르침과 믿음)가 아니라, 斯世·斯民을 위한 배움과 실천, 즉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위한 輔國安民之學이다(“陷之死地 出生들아, 輔國安民 어찌할꼬”. 『용담유사』, 「권학가」). 최제우는 물론이고 최시형과 손병희도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유불선은 물론이고 천주교(西學)나 기독교(洋學=英學)도 모두 받아들였다(會通). 왜냐하면 보국안민의 방법은 민중적 삶의 조건, 또는 시세·시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선생에게 배웠기 때문이다(時中論).³¹⁾ 1899년 5월(음력 4월) 고부 등지에서 발생한 이른바 ‘英學黨(=英學軍) 사건’은 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한 再起包, 즉 英學(기독교와 양학)에 기댄 새로운 버전의 東學 更起였다.
- 1898년 6월 법헌 최시형이 체포 처형된 이후, 교단화(종교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일본 망명 이후 손병희는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의 실천방안으로 삼전론(도전, 재전, 언전)을 제기했는데, 그 핵심은 1894년 어셈블리 때와 달리, 일제와 타협하는 가운데 척양척왜 보국안민보다는 식산흥업과 문명개화를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척양척왜론을 폐기하고, 보호조약을 찬성하는 진보회와 일진회의 노선은 대중적 지지기반이 그리 넓지 않았다. 1894년의 어셈블리와는 달리 갑진민회운동은 대중적 지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는, 정교분리를 선언하며 천도교가 창립되면서 종식되고 말았다.
- 동학은 1894년 어셈블리 당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기쁨의 情動= affect, 긍정적 감응)이 있었다. 그러나 동학의 영부와 주문을 기본으로 한 각종 동학식 의례와 의식들, 항일의려 형성 과정에서 힘이 아니라 짐된 측면도 있었다. 요컨대 동학의 개방성, 현실주의는 장점이기도 하나 단점일 수도 있었다. 1904년 갑진민회운동 이후 천도교와 시천교의 등장, 한말 일제하의 각종 신흥 종교운동 등도 동학 어셈블리의 연장이라 말할 수도 있으나, 동학의 종지, 동학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건들이었다. 31운동 이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 왔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차이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 쉽지 않았다.³²⁾

안된 동학식 의례와 의식이었다.

31) 믿음보다는 배움을 중시하는 사세·사민을 위한 동학, 동학의 개방성, 유연성, 장점일 수도 있으나, 단점일 수도 있다. 동학운동 과정에서, 유불선과 천주교(서학), 그리고 기독교(양학)까지 會通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말 一進會의 정합방론, 일제하의 時中會의 시중론(대동방주의)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체성의 위기’도 그만큼 더 커졌다.

32)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을 강조하는 일제하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한동안 청년학생들과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으나, 이 또한 차이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에 실패했다. 동학 어셈블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인계손익, 성취와 한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 <갑오변란 이후 ‘2차 봉기’ 의 기점>

- 1894년 4월 27일 호남 동학군은 전주성 점거에 성공했으나, 곧바로 경군에 포위되어 점거 농성을 벌이며 정치담판이나 협상을 벌이는, 즉 더 큰 도회(경사대도회), 더 큰 연대(충의지사의 항일 의려)를 도모하는데는 실패했다. 경군의 공격과 청국군의 파병 소식이 전해지자 남접 지도부는 농성을 풀고 급하게 ‘전주화약’ (초토군과의 安民約條)을 체결한뒤 병장기를 반납하고 전주성을 물러났다. 전주성 점거 시기의 호남 동학군, 경사직향을 할 처지도, 대규모의 도회(호남대도회)를 개최할 형편도 아니었다. 남접집단이 주도한 호남 지역의 1차 봉기(제1차 농민전쟁)는 이렇게 하여 막을 내렸다.
- 전주화약 이후 호남 각지 동학군은 각자의 근거지에서 都會를 개최하고(순창, 장흥, 남원, 순천 등지), 都所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가운데 7월 6일 전봉준 등 남접 지도부와 전라감사 김학진은 官民相和하여 同赴國亂하기로 약속한뒤 호남 53개 군현 관아에 집강소(우도집강 전봉준, 좌도집강 김개남)를 설치했다. 이때 관아에 설치된 집강소는 도회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소와 그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 집강소는 치안유지 등 관민상화 목적, 관민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폐정개혁 기구였음에 반해, 도소는 각자 기포한 동학군이 도회를 통해 주체적으로 설립한 일종의 자치 기구였다.³³⁾
- 기존 연구처럼 1차 봉기와 2차 봉기 사이, 즉 전주화약 이후부터 삼례 재기포 이전 시기까지를 ‘집강소 통치기(체제기)’로 구분하는 것은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의 산물이다. 호남 동학군의 1차 봉기는 전주화약 이후 종료되었으나, 6월 21일 갑오변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동학군의 각자기포는 남접집단의 재기포와는 무관한 ‘2차 봉기’라 규정해야 한다. 동학군의 2차 봉기(기포)는 9월 10일 삼례 재기포 때가 아니라 갑오변란 이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되었다. 갑오변란 이후 조야유생들 사이에 항일 의병론과 더불어 대원군 밀지설, 조가밀교설 등이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상당수의 동학 지도자들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각자기포한 것으로 보인다.
- 임기준, 안교선, 홍재길, 이유상 등이 이끈 공주와 호서 동학군은 이준용을 앞세운 쿠데타 세력과의 연계(밀지, 밀교) 가운데 7월초부터 크고 작은 도회를 통해 동학 도중을 모으기(=기포) 시작했는데, 주요한 특징은 민회소와 유희소를 중심으로 항일연대(호서 창의소, 호주대의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8월 1일 이유상 등 부여

33) 都所도 그러하나 執綱所도 인의와 민본, 자치와 자율을 강조하는 도회·의거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전주화약 이후 동학군이 호남 단위에서 폐정개혁을 스스로 실천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 ‘집강소 체제기’라 호명하는 것,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나, 이 또한 1894년 어셈블리 과정에서 꽃을 피운, 도회의거 문화를 산물이라는 점이 전제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와 공주 유생들이 주도한 건평유희와 임기준 등이 주도한 동학군의 궁원도회가 공주 부내 진입과 동시에 儒狀과 民訴를 올린 것은 8월 2일이었고, 이후로도 10여일 이상 금강변에 둔踞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전봉준 김개남 등 남접집단이 7월 초부터 남원을 중심으로 도회를 개최하였듯이 삼례 재기포 이전에도 삼남 각지에는 이미 각자 기포한 동학군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 기존 연구들은 2차 봉기, 즉 제2차 농민전쟁의 기점으로 9월 10일(12일?) 경의 삼례 재기포(대도소 설치와 거의 통문 발송)를 중시한다. 하지만 삼례 재기포는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른 밀지(쿠데타)계획과 관련한 사건이었으므로, 사건사적으로 볼때도 남북접 연대에 기초한 공주 점거투쟁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건이다. 전봉준은 재판과정에서 왜 어디서 언제 재기포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10월 경(分: 11일, 12일경) 공주 점거를 위해 호남 동학군을 논산 방면으로 진출시킨 사건(전주=호남 재기포)을 언급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2차 봉기의 기점은 삼례 재기포 때가 아니라 갑오변란 이후 각지의 동학군이 각자 기포하는 시점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 <2차 봉기와 대원군 밀지(=쿠데타 모의) 계획의 연관성>

- 과거든 현재든, 대중적인 어셈블리 투쟁이 벌어지는 경우, 다양한 음모론 또는 ‘제3자 개입(선동설, 사주설, 조정설, 연계설)’ 소문이 무성하기 나름이다. 특히 호남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거하는 등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누군가의 사주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했다. 예를 들면, 대원군 세력(윤변인) 이외에 고종(별입시)과 민씨세력, 김옥균·박영효 등 갑신정변 세력, 천우협 등 일본 낭인 세력 등등과 연계된 사건이라는 소문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일본공사관측이 문제삼은 소문(사건)은 유독 대원군 세력이 주도한 쿠데타 모의 사건 뿐이었다. 일본공사관측은 일찍부터 대원군 세력이 이준용을 앞세워 정변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입 시점과 활용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었다.³⁴⁾
- 갑오변란 이후 대원군 攝政(監國)체제가 출범했을때,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대원군 세력이 이준용을 앞세워 쿠데타를 시도한 것(혹은 했다는 소문)은 당시의 정국이나 정세를 감안할 때, 자연스럽다. 게다가 일본공사관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밀지, 서찰, 심문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쿠데타 세력이 호서(서장옥, 임기준)와 호남(전봉준, 김개남) 동학군 지도자들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느정도 사실로 보인다. 밀지계획에 따르면, 정변세력은 호남 동학군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기호와 호서지역 동학군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쿠데타 세력이 가장 믿었던 임기준 집단은

34) 밀지계획을 사건화한 것은 특명 전권공사로서 조선 보호국화를 진두지휘한 이노우에 가오루였다. 그는 이른바 ‘동학당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각 정치세력간의 내분을 조장하였다. 후비보병 독립 제19연대는 대본영이나 병참사병관이 아니라 이노우에 공사의 지휘 아래 동학군 탄압작전을 벌였다.

대원군 효유문(8월 24일경)이 발표되자 충청감사 박제순과 安民約條를 체결한뒤 효유문에 대한 답서 형식글을 올리며, 자진해산(釋兵歸田)했다. 전봉준 등 호남지역의 동학군은 9월 10일경 삼례 재기포 시기까지는 밀지계획과의 관련 속에서 북상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밀지계획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뒤 곧바로 기병부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동학군을 끌어들이려 쿠데타를 도모했던 운변인들도 권력투쟁에 동원된 꼭두각시만은 아니었다. 정치세력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쿠데타 주도세력(이준용, 박준양, 이태용, 정인적, 허엽, 이견영, 송정섭, 박동진, 박세강 등등)의 정세관이나 개혁방안을 이해하는 것,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쿠데타 관련 인물 가운데 정인덕(배제학당 교사 역임, 내무주사), 허엽(나성산) 등이 동학군을 설득하여, 서양처럼 상하의원을 설립(공同의 政治)하는 투쟁을 전개하려 했다는 진술 등은 1898년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이나 1904년 진보회·일진회의 정당·의회 설립운동 등이 이미 1894년 동학 어셈블리 당시부터 싹트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전봉준의 명망있는 선비들의 會議法에 의거한 통치도 크게 보면, 이와 유사한 발상의 정치개혁론이라 여겨진다.
- 북접교단이나 황산도소 세력도 대원군의 밀사들과 일정한 접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병휘가 제출한 시말서」(정인덕의 언급)에 따르면, 경사직향한 동학군에게 부여된 임무는 종로에 만민소청을 설치한뒤 만민소를 제기하는 것(나성산=허엽?의 진술에 따르면 이용구가 소두를 자청했다고 한다)이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쿠데타에 직접 참여하는 아니었다. 당시 쿠데타 세력이 동학군을 동원하려 한 이유는, 그들의 전투 역량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의로운 거사(=義擧), 즉 정변의 대의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人衆勝天의 논리대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참여 가운데 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쿠데타의 대의명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 <공주 접거 투쟁의 목표와 방법>

-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 남북접 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으나 1차 봉기는 호남 단위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양자간의 갈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의 갈등과 대립이 커진 것은 2차 봉기 시기, 특히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군 탄압이 극심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군 탄압은 경부 병참선, 특히 영남 북부(낙동강 부근)와 호중 남부(남한강 부근), 그리고 경사와 가까운 기호지역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북접계 동학세가 강력한 지역이었다. 북접교단이 일본군 병참사령부에 가라지와 곡식을 운운하며 거리두기를 시도한 것, 혹은 공공연히 남벌론을 표방하며 차이를 강조한 것 등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 남북접 연대가 성사된 것은 9월 10일경 삼례 재기포 때도 아니고, 9월 18일 기포령(招

論文 발표) 때도 아니었다. 남북접 연대(조화) 과정을 소상히 다룬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에 따르면 양측의 연대(調和)가 이루어진 것은 9월 晦間이었으며, 이 무렵에 공주 점거 투쟁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접 지도부는 공주 점거투쟁에 합의한 이후 대규모의 원정대를 조직한뒤 ‘전일의 약속대로’ 통지를 주고 받으며 금강 남북 방면으로 진출했다. 남접집단은 아무 방해도 없이 삼례를 출발하여 10월 12일경 논산 방면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북접동학군은 준비 부족과 일본군 및 관군(교도병, 청주 영병)의 방해로 10월 23일경에야 대교와 계룡산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894년 어셈블리 과정에서 동학군은 자주 경사직향, 구병입경, 기병부경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양호창의영수였던 전봉준(「공초」)은 물론이고 동학군 통령이었던 손병희(「조서」)도 공주 점거투쟁의 목표를 ‘일본군의 축출과 정권 타도’ 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주 점거 투쟁 시기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세와 조건이 아니었으며, 남북접 지도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주 점거 투쟁 직전 시기 남북접 지도부가 합의한 ‘공동 대응책’, 즉 공주 점거투쟁의 목표는 구병입경이 아니라 공주를 점거한뒤 농성전을 벌이며, 일본과 조선정부를 상대로 정치 담판을 벌이는 것이었으며, 그 방법은 금강 남북 방면에서 대규모의 군중 집회와 무장 시위를 전개하여 경군과 영병의 내용, 이교와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 물론 오지영의 『동학사』나 권병덕의 「갑오동학란」은 물론이고 북접계 동학군의 여러 회고자료에도 당시 남북접 동학군의 목표가 구병입경이나 기병부경이었다는 서술이 자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남북접 동학군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궁극목표와 관련한 슬로건이지, 공주 점거의 당면 목표, 또는 현실적 목표는 아니었다. 물론 공주 점거 투쟁의 결정 배경과 시기, 투쟁의 목표와 방법 등에 대한 추론은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① 전봉준의 최후 진술, ② 공주 점거투쟁을 앞둔 시기 전봉준과 이유상이 충청감사에게 올린 상서, ③ 공주 점거투쟁 시기에 발표된 두 개의 고시, ④ 더 결정적으로는 일본군이나 관군측 보고자료를 근거로 남북접 동학군의 동향이나 투쟁 방식 등을 면밀히 재현해보면 경사직향론은 그 설득력이 더더욱 약하다.
- 공주 점거 투쟁에 대한 사건사적 이해를 높이려면,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 특히 발통, 취회, 등소, 봉기 과정, 특히 A/O(assembly/occupy) 투쟁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이고 모아, 점거하고, 담판하는 투쟁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공주성 점거 투쟁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전주성 점거 투쟁도 都會地(處)를 점거하기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사직향 구호(가자! 광화문으로)는 내전과 혁명을 목표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국왕 직소, 더 나아가서는 점거와 농성 등을 동반한 정치 담판, 즉 경사대도회(만민공동회)를 염두에 둔 구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A/O 투쟁의 전개과정에서, 우연적인 계기에 의한 새로운 정세와 국면이 조성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투쟁 주체와 목표가 형성되는 경우, 어셈

블리 자체가 내전이나 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이나 잠재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1894년 어셈블리 당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 <공주 점거 투쟁의 전개양상>

<공주 점거투쟁의 사건사적 배경>

- 1차 봉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북접교단이 9월 18일 기포령을 발표한 것은 청일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일본군 수비대가 경부 병참선 인근의 북접 동학군을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탄압했기 때문이다. 장위영 영관 이두황과 경리청 영관 성하영이 죽산부사와 안성군수로 임명된 것은 9월 10일 경이었다. 9월 22일 양호도순무영이 설치되고, 9월 26일 고종의 先斬後聞 전교가 발표된 이후,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군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사정이 이러하자 북접교단은 그간의 거리두기(남별론)을 폐기한뒤, 남접집단과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북접 지도부는 9월 말경 최시형의 폭거중지 혁심개도 유시에 기초한 조건부 연대를 성사시킨뒤 유시에 기초하여 공주 점거 투쟁을 설계하고 실천했다. 공주는 兩湖의 要衝이자 선택 가능한 가장 적절한 都會地였다.

<공주 점거 투쟁 시기 북접계 동학군 동향>

- 1892년 교조신원운동을 전후 시기부터 동학조직은 최시형을 중심으로 급속히 교단화(법헌, 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시형이 이끌던 동학교단, 즉 북접 지도부는 남접집단이 호남에서 1차 봉기를 시작할때부터 거리두기를 시도하였으나, 청일전쟁 발발 이후 경부 병참선(특히 기호지역) 인근 지역에서부터 일본군과 관군의 탄압이 본격화하자 9월 18일 각자기포하여, “빠른 기일에 회집하여 정성을 다해서 황제폐하께 크게 호소하여 선사의 숙원(宿怨)을 상쾌하게 풀어드리고 다함께 나라의 급난(急難)에 달려가기를 천번 만번 바란다.” 는 내용의 초유문(기포령)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왕의 선참후분 교서가 발표되는 등 국왕직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북접교단은 각자기포하여 會立自生·自境保衛할 것을 훈시문 형태로 각지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일본군과 관군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자, 북접 지도부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공주 점거 투쟁에 참여한 북접계 동학군의 주력은 일본군과 관군의 탄압을 피해 충주 황산(무극장터, 광희원장터) 등지로 모여든 기호와 호중, 영남, 관동 등지의 동학군이였다. 이들은 손병희, 이종훈, 이용구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공주 점거투쟁에 참여하였다. 10월 초순경부터 법소가 입지한 보은 장내리로 모여든 북접계 동학군은 10월 11일경 보은을 출발하여 청산(옥천)에서 치성식(10월 14일?) 개최한뒤,

금강 북안지역(대교)으로 향했다. 당시 북접계 동학군의 지도부는 탄압을 피해 호중지역으로 몰려든 기호 남부(안성, 죽산, 광주)와 영남 북부(상주, 문경, 예천)의 동학군을 이끌던 손병희, 이종훈, 이용구 등 황산도소 세력이 장악했다.

- 북접계 동학군은 남접지도부와의 약속대로 금강 북안의 요충(대교, 궁원, 유구)을 점령한 뒤 공주 남북 방면에서 기각지세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으나 10월 23일 대교 싸움에서 패한 뒤 불티나루, 나릿재나루 등을 건너 대부분 금강 남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 1차 접전 직전 시기 각자기포하여 회립자생 자경보위 투쟁을 전개하던 북접계 동학군(수원, 천안·목천, 서산·태안 등등), 또는 임기준(안교선, 홍재길) 집단이 이끌던 공주와 호서동학군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0월 23일경부터 11월 11일경까지 금강 남북 방면으로 진출한 남북접 동학군의 숫자는 가장 많았을 때(10월 25일 효포싸움 무렵), 대략 1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 1차 접전>

- 공주 점거 투쟁 시기 남북접 동학군의 전략전술은 각기 금강 남북 방면에서 공주를 포위(掎角之勢 형성)한 뒤, 대규모의 군중집회와 무장시위를 통해 경군 영병의 내용과 이교시민의 호응 등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일본군 서로군과 선봉진이 공주에 도착하기 직전인 10월 22일경 공주를 수비하던 일부 경군이 동학군의 기세에 놀려 금강을 건너 도망하려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차 접전 직전 시기가 동학군의 기세가 가장 드높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군측 자료는 공주로 모여든 남북접 동학군을 ‘恒河의 모래’에 비유했다.³⁵⁾
- 10월 23일경부터 25일까지 전개된 금강 남북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된 공주 1차 접전은 무력을 동원한 전면적 공성전(특히 능티 방면 돌파)이 아니라, ‘前日の約束’대로 서로 통지(밀통)을 주고 받으며, 남북접 동학군이 동시에 수행한 일종의 ‘행진(퍼레이드)’, 또는 ‘무장시위’였다. 일부 연구들은 효포전투 시기 동학군이 능티를 넘어 곧바로 공주로 진입하려 했다고 보았으나, 당시 흥개를 앞세운 남접 동학군의 행진 목표는 호남대로상의 요충인 장기대나루였다.³⁶⁾ 공주 점거투쟁의 절정은 흔히 말하는 우금티 전투가 아니라 금강 남북 방면의 요처에서 수만명의 남북접 동학군이 ‘六晝夜’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공주 1차 접전이었다.³⁷⁾

35) 기존의 연구들은 『公山剿匪記』 가운데, ‘積尸滿山(牛金之師: 공주 2차 접전)’ 운운한 대목을 주목하였으나,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이보다, “是夜賊壘火光相暎數十里人山人海 幾比恒河沙數(孝浦之戰: 공주 2차 접전)”라는 비유를 더 주목하였다.

36) 권병덕의 「갑오동학난」(『이조전란사』), 효포전투 상황 묘사, “將旗臺津으로 동학군이 勇湖 갖치 進하니 관군이 拒함으로 교전 數함에 승패는 決치 못하였으나 (중략) 十月二十五日에 孫秉熙와 全瑋準이 數十萬衆의 東學軍을 領率하고 忠淸道 首府인 公州城을 ‘占領’하고 ‘장차’ 京城으로 直上하랴 하야, 公州城으로 들어가는 ‘要塞 牛金峙、犬蹲峯、周峯、熊浦、錦津等地’에서 ‘六晝夜’를 繼續交戰하야 兩軍의 死傷이 數萬에 達하였다.” 일본군의 「전투상보」, 『선봉진일기』, 그리고 『공산초비기』, 『남정록』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이런 정황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37) “公州서 接戰은 何時인고”라고 질문하자 전봉준은 “去年十月二十三四日間니이다”라고 답했다. 오지영의 『

- 공주 1차 접전 시기 북접계 동학군은 대교, 공주 북문(옥녀봉? 방면), 계룡산 방면(신소, 왕촌, 판티, 시화산), 이인 방면(이유상 포) 등으로 진출하여 무장시위를 벌였으나, 이때까지 손병희가 이끈 북접계 동학군 본대는 일본군 중로군(교도려 및 청주 영병)의 추격과 탄압(26일 지명나루 싸움) 때문에 공주 진출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접전 이후 북접계 원정군은 논산 방면으로 퇴각하여 전열을 재정비했는데, 손병희가 북접계 동학군 본대를 이끌고 공주 점거투쟁에 합류한 것은 1차 접전이 끝난 10월 말경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무렵(10월 28일 대신사탄신일?) 손병희와 전봉준은 서로 만나 우금티를 주공격 방향으로 한 공주 2차 접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 남북접계 동학군은 경천에서 장기대나루로 향하는 호남 가도상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을 뿐이나 일본군과 관군은 집단 발포와 학살을 서슴치 않았다. 고시와 계방 등을 통해 동학군은 간곡히 호소하였으나 경병과 영군, 이교와 시민의 내용과 호응은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사기도 떨어지고 추위도 심해지자, 점차 고립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1차 접전 직후부터 호서는 물론이고 호남에서조차도 유희군과 민보군(수성군) 중심의 반동학군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천안·목천지역, 서산·태안지역, 충주·청주 등 호중지역 동학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탄압과 저지로, 상당수가 공주 점거투쟁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공주 2차 접전>

- 1차 접전에 실패한 이후 남북접계 지도부는 각자기포하여 호중과 호남에서 나름대로 세를 유지하고 있던 동학군을 총동원하여 공주 점거투쟁에 나서려 했으나, 반동학군 세력의 발호로 말미암아 동학군의 동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손화중과 최경선 부대는 물론이고, 김인배포, 이방언포 등 많은 호남 동학군이 근거지 방어에 매달려야 할 형편이었다. 남북접계 지도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공주 인근지역에 집결시킨 뒤 11월 8일경부터 또다시 공주 점거전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관군측의 정탐보고에 따르면, 공주 2차 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남북접계 동학군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孫化中: 손병희의 오기), 이유상(李有相: 李裕尙의 오기, =이유형), 강채서(姜采西: 강건희? 회덕=공주 박운리 접주), 오일상(문의접주), 최명기·박화춘(유성접주), 안성포(선봉 정경수), 상주포(영동포?)” 등이 이끌었다고 한다.
- 공주 1차 접전 이후 남북접계 동학군은 추위도 심해지고 사기도 떨어져 대오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포위·고립될 위험성조차 커지고 있었다. 당시 호중과 내포지역을 돌며 동학군을 탄압하느라 공주 수성전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않았던) 일본군 중로군과 우선봉진은 우금티 싸움 직후 노성 방면

동학사』, 권병덕의 「갑오동학난」, 황현의 『오하기문』 등이 공주 점거투쟁을 서술할 때 우금티 싸움보다는 한결같이 공주 1차 접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다.

으로 진출하여 남북접 동학군의 배후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개된 남북접 지도부의 합의(전봉준과 손병희의 의기투합=형제지의) 가운데 진행된 공주 2차 접전은 군사적 승리를 목적으로 한 전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뜻(거의의 대의명분)을 시위하기 위한 萬死一生之計였다.

- 11월 8일경부터 시작된 공주 2차 접전은 우금티를 주공격 방향으로 하여 9일 아침 나절부터 오후 무렵까지 펼쳐졌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희생자가 속출하자) 남북접 지도부는 곧바로 퇴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군측 기록에 따르면, 11일경까지 계룡산 방면에 일부 북접계(호서) 동학군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일본군과 관군은 우금티 싸움 바로 다음날인 11월 10일 승전 퍼레이드를 벌인 뒤 논공행상을 실시하였다. 일본군과 관군은 우금티 싸움에 승리한뒤에도 곧바로 추격전을 벌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남북접 동학군을 노성 방면에서 포위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군 중로군과 우선봉진이 동학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노성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 11월 13일 아침 나절에 잠시 전개된 청주성 싸움은 김개남포의 독자적인 기병부경 활동이 아니라 공주 점거 투쟁과 연계된 聲東擊西 차원의 공세였다. 청주성 싸움을 주도한 동학군은 호남 동학군(김개남포)이 아니라, 상당수가 호서 동학군이었다. 일본군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13일 새벽 청주성 인근으로 모여든 동학군은 1차 접전 이후 김개남이 이끌고 진잠·청주 방면으로 북상한 일부의 호남 동학군, 그리고 공주 점거 투쟁에 참여했다가 왔던 길을 되짚어 퇴각하던 청주 인근의 호중 동학군, 또는 호중에 남아 지명강(26일) 싸움, 증약(29일) 싸움 등을 이끈 회덕, 문의, 옥천 등지의 동학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개남이 이끌던 일부의 호남 동학군은 청주성 싸움 이후 급하게 논산을 거쳐 전봉준포와 함께 호남(전주)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남북접 동학군의 해산>

○ 우금티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 남북접 동학군은 곧바로 호남 방면으로 퇴각하였고, 일본군(서로군과 중로군)과 관군(좌우 선봉진)은 공주 수성전 이후 다시 전열을 정비한 뒤 11월 20일 경부터 호남 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남북접 동학군은 금구, 원평, 태인 등지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공세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연이어 실패하였다. 그러자 11월 27일 태인전투 직후 양호창의영수였던 전봉준은 금구에서 동학군의 해산을 공식화했다. 남북접 동학군이 함께 수행한 공주 점거투쟁은 이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 공주 점거투쟁에 실패한 이후 북접계 동학군은 왔던 길을 되짚어 자신의 근거지(고향; 기호, 호서, 영남)로 퇴각하고자 했으나, 일본군 중로군과 교도중대, 청주영병이 이를 차단하자 호남 동학군을 따라 호남 방면으로 퇴각했다. 그러다가 전봉준이 금구에서 동학군의 해산을 선언하자 북접 동학군도 이에 따라 해산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호

씨약력」에 따르면, 북접 원정군 지도부는 최시형의, “도인 중에 진실한 사람은 적고 다수가 도적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다가는 전부 죽이고 말 것이니, 곧 자기 집만큼은 데려다 주” 라(「균암장 임동호씨 약력」)는 지시에 따라 귀향(북상)을 시작했다. 북접 동학군이 무주를 거쳐 영동·옥천·보은 방면으로 북상하다 이른바 ‘북실참사’를 겪은 것은 12월 18일, 이후 천신만고 끝에 손병희포가 기포지(출발지)인 황산도소 인근 지역에 도착한 것은 12월 24일이었다.

■ <항일 무장투쟁론의 신화성>

-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에 따르면, 두 차례의 공주 접전은 항일무장투쟁(조일전쟁?)이다. 하지만 양호창의영수였던 전봉준은 재판과정에서 다시 기포(再次舉事)한 이유를 묻자 두 차례나, ‘犯闕 사실을 請問, 또는 詰問하기 위해서’ 라 답변했다.³⁸⁾ 물론 그 앞 문장에, “義旅을 糾습하야 日人과 接戰한다” 는 구절이 보이기는 하나, <한국사 DB>를 검색해 보면, 청문 혹은 힐문은 대의명분을 앞세운 정치 담판이나 협상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를 감안하고 보면, 위의 진술은 접전의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담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천우협 낭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봉준이 했다는 “仁은 우리의 갑옷(金甲)이고, 義는 우리의 방패(鐵楯)이다” 라는 말, “우리가 든 칼은 殺人劍이 아니라 活人劍이다” 라는 말(「천우협」, 『신국역총서, 15』, 209쪽)들은 남접집단이 무장투쟁, 내전과 혁명의 중앙지도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 물론 <사발통문>에 보이는 고부성 격파, 군수 효수, 군기창 및 화약고 점령, 탐관오리 격징, 전주영 함락, 그런 연후 경사직향하자는 슬로건 등은 무장투쟁을 선포하는 행위 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장포고>³⁹⁾와 <사개 명의>, <대적시약속 사개항> 등은 물론이고, 1차 봉기 시기 호남 동학군이 보인 행태, 즉 크고 작은 도회, 도내 각군 행진(퍼레이드), 전주성 점거·농성, 폐정개혁 합의, 자진 해산 등의 과정을 보면, 이들이 시종일관 무장투쟁(농민전쟁)을 추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히 않은 점이 많다. 전주성 점거 이후 남접 지도부가 초토사나 전라감사와 주고받은 각종 訴志나 文狀들도 일종의 정치 담판이지 전투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군사협정이 아니다.
- 동학군이 경사직향(구병입경, 기병부경)했을 경우, 어셈블리 자체의 수행성 효과로 말미암아 투쟁의 수위, 심지어는 투쟁의 주체와 목표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해서

38) “貴國이 開化라 稱하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하미 無하고 또 檄書도 업시 率兵하고 우리 都城에 入하야 夜半에 王宮을 破擊하야 主上을 驚動하엿기로 草野의 土民더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不勝하야 義旅을 糾습하야 日人과 接戰하야 此事實을 一次 請問코져옵니이다”.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 > 全琿準 供草 > 開國五百四年二月初九日東徒罪人全琿準初招問目.

39) 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保國安民(輔國安民 一필자). 爲死生之誓. “우리 모두 말과 뜻과 몸과 기를 모아, 죽음을 무릅쓰고 보국안민의 의기 기치를 드높이 들어 올리자”는 말을 宣傳布告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무장 포고의 내용과 형식은 大義布告이지 결코 宣傳布告가 아니다.

는 안된다. 요컨대, 1894년 어셈블리 4년 뒤인 1898년 독립협회가 京師(종로)에서 만민(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민회=의회(상하의원) 설립 투쟁을 전개하였듯이 동학군의 경사대도회도 정변이나 병란 뿐만 아니라 민회 설립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동학군을 서울로 끌어들여 쿠데타를 도모하려 했던 세력 가운데에는 정인덕이나 허엽처럼 ‘上下議院을 통한 公同의 政治’를 구현하고자 한 이들도 있었다.⁴⁰⁾ 정인덕의 위와 같은 제안은, 전봉준의 ‘명망 있는 선비’들에 의한, ‘습議法⁴¹⁾에 의거한 통치’ 발언과 마찬가지로 합의나 실현 가능성(지지세력, 지지여론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개혁 방안이었다고 판단된다.

- <무장 포고>에 보이는 사생결단(死生之誓)하러 한다는 표현은 자신들의 결기·결의를 강조한 것이지, 선전포고는 아니다. 게다가 백산도회(무장포고) 시기 발표한 4개의 名義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은 “不殺人 不殺物”이며, 對敵時 約束 4項에도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刀而勝者 爲首功”, “雖不得已戰 切勿傷命爲貴” 등이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최시형이 남북접 연대의 전제조건으로 ‘폭거중지 혁심개도’ 유시를 강조했듯이, 남북접 지도부는 1894년 어셈블리 과정에서 무장투쟁을 의도적으로 선동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 1894년 어셈블리는 起包라는 말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셈블리(모이기/ 모으기) 투쟁을 전개하자는 뜻이지, 起兵하여 戰爭을 벌이자는 뜻은 아니다.
- 『甲午略歷』은 起包라는 말 뒤에, “동학도가 병사를 일으키는 것(東徒之起兵謂之起包)”이라는 각주까지 부기했는데, 匪賊(暴徒)↔良民論에 기초해 보면 당연한 왜곡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일본군의 보고(『주한일본공사관기록』)나 『東京每日新聞』 등은 이와 달리 起包를 “동학당이 자신의 黨類(=徒黨·一黨)를 모으는 행위(黨類ヲ集ムルコトヲ東黨ハ起包ト云フ)”, 또는 “자신들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자신들의 당류를 모으는 행위” [各地方に於て起包し(起包とは彼等の黨類を集むるを云ふ)己の意思を執行せんと欲せしものゝ如し]라 정확하게 규정하고 번역했다.(〈한국사 DB〉 起包 용례 참조)
- 백산도회 때 최경선(1894년 어셈블리 당시 유명한 火砲領將)이 맡은 領率將이라는 직함도 군대나 병사의 行軍이 아니라 집회군중이나 무장시위대의 行進을 이끄는 장수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차 봉기의 핵심코드는 ‘전투’와 ‘점령’이 아니라, ‘행진(피레이드)’과 ‘점거’(occupy)였다고 말해야 옳다. 지나치게 과격적인 주장일

40) 대원군 밀지사건 관련자인 배재학당 교사를 역임했던 정인덕, 그리고 임진수, 박동진 등이 동학군 지도부를 설득하여 ‘上下議院’(民會=議會)을 설립하는 투쟁, 즉 ‘상하의원을 매개로 한 公同의 政治’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동학군 지도부의 반대로(무지 = 이해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그간의 연구들은 밀지사건(쿠데타 모의사건) 관련자들의 사상과 노선(투쟁 목표와 요구)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나, 쿠데타 사건의 주모인 이준용과 박준양, 이태용 등도 만만치 않은 이력과 경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이자 세력’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904년 갑진민회운동 시기 손병희, 이용구 등 북접교단 지도부가 독립협회의 일부 세력, 송병준 등 일본 망명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일진회 및 진보회 운동, 즉 정당 혹은 의회 설립투쟁을 전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자연스런 귀결일 수 있다.

41) ‘습意’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습議’란 보은도소 주체들이 언급한 ‘서양의 민회(의회)’ 운운한 대목처럼 입헌군주제, 혹은 national assembly(上院=貴族院?, 독립협회가 요구한 中樞院 설립)를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런지는 모르겠으나, 황토현·장성싸움도 (농민)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의도적인, 목적의식적인 ‘전투’ 행위가 아니라 시위 행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接仗于黃土峴), 혹은 ‘자신들의 행진(대오)을 지속(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의미’의 접전(교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 동학군이 스스로 軍·兵·戰 등을 칭한 것, 이와 동시에 義兵·行軍·接戰 등 군사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한 것 등은 병농일치 사회의 관행일 뿐이다. 동학군의 자체 무장, 혹은 별도로 조직한 무장대(별동대)는 방어 수단이지, 전쟁, 또는 내전이나 혁명의 수단은 아니었다. 화포영장이 이끄는 포군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접주들이 인솔한 동학군의 무장(무기)은 살상용이 아니라 방어용, 혹은 시위용이었으며, 포군들의 폭력도 대항폭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폭력적인 성격이 강했다.⁴²⁾ 동학군이 선제적으로 遊擊戰(奇襲·夜襲)을 감행한다거나, 요소요소 매복조나 저격병을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병농일치 사회의 관행대로 남접이건 북접이건, 호남이건 호서건 동학군 모두가 자발적인 무장과 동시에, 무장시위를 전개하였다. 민중들의 자발적인 무장과 시위(폭력행사)는 지도부도 통제가 쉽지는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1894년 동학 어셈블리는, 모이고 모아, 점거하고 담판하는(A/O) 투쟁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 1차 봉기 시기 전주성 점거투쟁이나 2차 봉기 시기 공주성 점거투쟁이나 모두, 모이고 모여 더 큰 도회지를 점거하여, 거 도회, 더 큰 연대와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이었다. 1차 봉기 시기 完山(封山; 慶基殿) 점거(突入全州監營)는 명동성당 점거(진입, 농성)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행위라 여겨진다.⁴³⁾
-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동학군 지도부도 일반 동학군이나 주민들의 통솔과 통제, 또는 자위와 방어를 위해 무장대(砲軍; 별동대, 일종의 ‘전투조’ = C.C. Combat Cell)를 편성하였으나, 동학군의 기본성격은 기포한, 즉 도회와 의거에 참여한 집회·시위 군중이었다. 물론 사건사의 전개 과정에서 전투(접전=교전)가 없었다거나,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동학군이 중시한 활동은 ‘전투’, 즉 무장 투쟁이 아니라 起包 그 자체, 즉 어셈블리(모이기/ 모으기) 투쟁이었다는 뜻이다. 남접이건 북접이건 동학 지도부는 대항폭력을 넘어 반폭력을 추구했으며, 어셈블리의 승패를 결정한 것도 전투가 아니라 어셈블리 그 자체, 혹은 차이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 능력이었다.

42) 폭력에 대항(저항)하기 위한 폭력이 대항폭력(defensive violence)이라면 반폭력(anti-violence)은 대항폭력조차도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이다. 김정환은 ‘반폭력의 정치’를, “증오의 이상화에 고착된 상징적 정체성이 극단적 폭력과 결합하여 잔혹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문명화(civiliser)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능동적 주체성과 집단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치(차이의 권리와 평등의 권리, 연대와 공동체의 권리)를 요구하고 구성하는” 정치행위라 규정했다. 『기획: 사회운동과 폭력』 5·18 무장투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대항폭력의 과잉과 반폭력의 소실. 『역사문제연구』 28, 2012, 참조.

43) “完營放砲之說 反謂 生等之罪 使主之放砲毀倒乎可乎 舉兵問罪無罪衆民殺害可乎 入城奪器不過防身逃命之故也(중략) 完山爲國家所重封山 留陣穿鑿在法禁斷 而閣下之故犯何意”(1894년 5월 4일 濟衆生等義所 명의의 『彼徒訴志』) ‘入城’, 즉 進入 또는 占據를 군사적·물리적 ‘占領’이라 서술하는 것, 상식적이지 않다. 위 소지에 따르면, 동학군의 전주성 점거(진입)는 초토군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하며 담판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조선왕조의 聖所인 封山(慶基殿)을 점거한 것이라 여겨진다.

- 동학군은 포고와 고시를 통해 목숨을 바치겠다거나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를 무장투쟁, 즉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곡해해서는 곤란하다. 농민전쟁의 시작이라 말해지는 茂長布告는 무장투쟁, 즉 전쟁을 선언한 宣戰布告가 아니라 起包, 즉 어셈블리 투쟁의 대의명분을 밝힌 일종의 大義布告였다. 한말 척사유생들이 주도한 의병투쟁도 총칼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압도하는 행위보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정치담판을 중시했다.⁴⁴⁾
- 1894년 동학 어셈블리를 무장투쟁, 즉 농민전쟁이라 규정하는 경우, 동학군 혹은 지도부의 미숙성, 한계와 오류, 특히 무기 열세, 훈련 부족, 전술 오류 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일제하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한계와 오류를 강조하며,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당시는 옳았을 수 있으나, 지금은 낡은 역사해석일 따름이다.⁴⁵⁾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는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크게, 길게 보면,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대과국의 서막이었다. 이런 성격과 의미는 동학의 탄생과 확산, 특히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 과정을 시야에 넣어야 포착이 가능하다.
- 1차 봉기(황토현, 장성, 완산 전투) 때는 동학군 사망자 못지 않게 관군측 사망자도 제법 많았다. 하지만 2차 봉기 때, 특히 공주 점거투쟁 시기에는 일본군(공주 1차, 2차 접전에서 전사자가 없었음)과 관군(전투 중 경군이나 영병이 죽었다는 보고 없음) 전사자가 거의 없었는데, 주요한 이유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동학군의 자제 노력 덕분이었다.⁴⁶⁾ 일본군과 관군을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수천 혹은 수만명(?)의 동학군이 희생된 사건(우금티 전투)을 ‘농민전쟁의 절정’이라 표현한다거나, 해당 사건을 ‘항일 무장투쟁’, 혹은 ‘朝日戰爭’이라 호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⁴⁷⁾

44) 13도창의대진소의 총대장(=회맹주)였던 이인영은 한국주차헌병대 본부에서 진행된 심문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전쟁(무장투쟁)이 아니라, ‘통감부와 諜의사를 교섭하여’ 관찰할 계획이었다는 점, ‘세상 일이 뜻과 같이 않아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가능하다면 일본정부, 즉 일왕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싶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혔는데, 위의 청문(請問), 힐문(詰問)은 이인영의 발언 가운데 보이는 ‘교섭(交涉)’이나 ‘변명(辨明)’과 거의 같은 의미, 즉 춘추대의를 앞세운 정치 담판(談辦)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된다. 辨明은 ‘잘못이나 실수를 구구하게 밝힌다’는 뜻이 아니라, 辨白(사리를 분별하여 밝힌다), 혹은 談辦(대화하여 누가의 말이 대의 명분에 합당한지를 다룬다)이라는 뜻이다. 최익현도 임병찬 등을 앞세워 병오의병(태인의병)을 일으킬 무렵 올린 상소에서, 자신들의 창의 목적은 ‘戰爭이 아니라 談辦’임을 분명히 밝혔다.

45) ‘영웅적 투쟁, 숭고한 희생’의 이미지는 사실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 전위당 형태의 중앙지도부를 건설한뒤, 산개하여 유격전을 벌여야 했다는 식의 속설(신동엽 『금강』, 신하늬의 제안)은 자다가 봉창뜯는 소리일 따름이다.

46) 공주 점거 투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군 전사자가 거의 없었던 것(연산전투때 일본군 1명, 관군 희생자는 不明)은 ‘不殺人 名義’, 또는 최시형의 ‘폭거중지 유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학군이 살생이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47)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말 척사유생들의 ‘의병전쟁(倡義, 義陣)’도 동학 어셈블리(도회·의거)와 마찬가지로 전쟁(교전)이라기 보다는 정치담판을 벌이기 위한 무장시위, 혹은 A/O 투쟁이라 호명해야 마땅하다. 일본군측의 집계에 따르면, 의병 참여자 수(연인원)는 1909년까지 13만 9711명, 사망자 숫자는 1만 7,675명, 부상자는 3,646명이었던 반면, 일본군 사망자는 132명, 부상자는 265명 정도였다.

- ‘동학농민전쟁(혁명)’ 이건 ‘의병전쟁’ 이건, 한말 항일 무장투쟁의 성취와 한계, 또는 무장투쟁으로서의 성격과 의미 등을 서술할때 ‘국사의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정세와 조건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물론 국가 폭력에 저항한 민중들의 자발적 폭력을 무조건 부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국가 폭력에 대항한 저항·대응폭력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내전이나 혁명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 군대의 개입과 주둔, 동족상잔의 비극, 집단(양민?)학살만을 결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분을 참지 못해 자발적으로 무장투쟁에 나섰다 하더라도, 과장과 신화화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전위당의 지도, 혹은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에 의거한 무장 투쟁(폭동), 대부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 대한제국 시기부터 오늘날의 남북한까지 모든 국가(정권)들은 富國強兵을 강조한다. 북쪽이 강성대국론이나 남쪽의 선진조국론이나, 도끼개깎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부국론은 민중 수탈론, 강병론은 민중 억압론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무장투쟁은 성공한 적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동학의 종지인 輔國安民論은 대한제국의 부국강국론과는 다른 차원의 이상이자 지향이기는 하나 그 한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유교적인 인의와 민본론, 충군애국론, 넘어서야 하나, 斯世·斯民을 위한 斯道·斯學, ‘보국안민 어찌 할꼬’ 라는 최재우와 전봉준의 화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유용하다.

■ 공주 점거투쟁 시기 사망자(희생자) 숫자

- 2019년 토론회 발제와 관련한 신문보도, “많이 죽지 않았다. 1천여명을 넘지 않았다”, “전쟁전투가 아니라 집회시위였다”,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 숭고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의 이미지를 가장 짧고 강렬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용감히 싸우다 많이 죽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우금티 싸움조차도 전투가 아니고, 많이 죽지도 않았다. “일본군과 관군의 물리적 폭력에 맞서 집회·시위(도회·의거, A/O, 反폭력) 투쟁을 전개 하던 하던 동학군(=起包한 東學 都中)을 향해 거리낌 없이 집단발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 해산한 동학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집단학살했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었으나, 설득이나 납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 1차봉기 때건, 2차봉기 때건, 접전 중에 사망한 동학군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사개 명의>, <대적시약속 사개항>, <군중절목>, ‘폭거중지’ 유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학군 지도부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접전은 가급적 피했기 때문이었다. ‘우금티 전투’라 불리우는 사건도 일종의 무장시위이지 전투(교전)는 아니다. 우금티 싸움에 참여한 2만여명의 동학군은 일부의 포군을 제외

하면 상당수는 일종의 무장시위대였다. 일본군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우금티 공방전이 벌어질 때도 死線(탄착점) 안쪽까지 접근한 동학군(포군)의 숫자는 2백여명을 넘지 않았다.

- 우금티 싸움 당시의 동학군 희생자를 추산할 때, “1만여명의 동학군을 이끌고 2차례의 접전을 치르고 나니 5백여명만 남았다”는 전봉준의 진술을 자주 인용하나, 이 진술은 많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세가 꺾여 대오가 흩어졌다”, 즉 상당수의 동학군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남은 5백명만 살아남았다는 뜻이라면, 전봉준이 그렇게 표현(답변)했을 리가 만무하다. 『공산초비기』 등에 보이는 ‘積尸滿山’ 운운하는 관군측의 비유는 자신들의 무훈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⁴⁸⁾
- 남북접 동학군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포접의 동료들이 시신을 직접 집으로 모시거나,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가매장(土坎)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공주 지역 구전에서 확인되는 이른바 무덤때, 돌무덤, 혹은 ‘크고 작은 무덤이 즐비한 공동묘지’는 동학군 스스로가 동료 희생자를 가매장을 한 흔적이라 여겨진다. 게다가 충청감영이나 관군측, 혹은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했다하더라도, 당시의 장례풍습을 감안하면, 집단적으로나마 매장은 해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공주에는 홍주⁴⁹⁾와 달리, 상당수(수십, 수백명?)의 동학군을 집단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장소가 거의 없다.
- 1894년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려면, 전투 중 사망자(전사자?)가 많았다는 사실, 즉 ‘영웅적인 투쟁, 숭고한 희생’의 이미지보다는 남북접 지도부의 해산 선언 이후에 진행된 야만적인 집단학살을 더 주목하고 강조해야 한다.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은 내전이나 혁명에 참여한 군인이나 병사가 아니므로, 戰死(<전투상보>)라는 표현도 가당치 않다. 공주 점거투쟁을 전투(교전, 접전) 혹은 전쟁(내전, 혁명)이라 호명하는 것은 수천 수만명의 농민군이 한 명의 일본군이나 관군도 죽이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스스로 제무덤을 팠다거나, 주문이나 부적 등 邪術에 사로잡혀 人海戰術을 쓰다가 때 죽음을 당했다는 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나, 옳어치나 매치나 매한가지다.⁵⁰⁾

■ 동학군의 구성(다중성)과 집단 정체성

48) 우금티에서 백수십명 정도가 희생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정치문화나 관념상으로는 이런 표현(=尸如山積, 積屍如山),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농민군들이 우금티를 공격하기 위해 콩나물 동이의 콩나물처럼 뻗 뻗이 올라왔다. 우금티에서 패전한 뒤에, 우금티에서 구시티 고개(이인)까지 사흘 걸려 풀려 나갔다.”는 증언(『공주와 동학농민혁명』, 127쪽.)도 일반 동학군, 즉 무장시위대의 동향을 묘사한 것이지, 사선에 근접하여 접전(전투)을 벌이던 포군들의 동향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당시 동학군이 빈총을 쏘며, 소리만 지르고 다녔다는 구전도 포군이 아니라 일반 동학군(시위대)에 대한 회고라 여겨진다.

49) ‘홍주의사총(사적 431호)’에 문헌 이들은 홍주 의병이 아니라, 대부분은 홍주성 전투 당시 사망한 동학군이라는 성주현의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0) 조경달은 <전투상보>에 보이는 일본군의 소비 탄약량을 근거로 동학군 전사자 숫자를 추정했으나, 당시의 전투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 또한 정확할 리가 만무하다.

- “古阜起包時の 東學이 多하야 冤民이 多하냐” 라고 질문하자 전봉준은 “起包時の 冤民이며 東學이 少하얏스오노 東學은 少하고 冤民은 多하니다” 라고 답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교과서 해설(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고부 농민 봉기> 항목에 보이는, “전봉준은 1894년 1월 10일에 약 1,000여 명의 동학 교도와 농민을 규합해서 봉기했다.” 는 서술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4월 봉기는 농민 뿐 아니라 동학 교도들이 대거 결집하였으며, 농민 항쟁이 고부라는 지역을 넘어서 보국안민과 반외세의 요구 아래 전라도 일대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는 서술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무장포고(기포)와 백산도회 이후 동학 어셈블리에 참여한 모든 농민(비도, 난민, 도적, 무뢰발피 포함)은 입도절차를 거친 동학도이자 동학군⁵¹⁾이었기 때문이다.
- 兵農一致 사회의 농민은 군인이자 병사이기도 했다. 농사꾼·나무꾼·지게꾼 등을 農軍·樵軍·擔軍이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도 오랜 병농일치 사회의 관행이었다. 갑오년 진주에 나붙은 방문(통문) 가운데는 遊軍(일이 없어 한가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보인다. 이때의 軍은 군대나 병사라는 의미보다는, ·遊軍처럼 ‘꾼’ 혹은 ‘무리’ 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다.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주체를 어떻게 호명해야 할 것인가는 학계의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농민전쟁론자들은 이들을 흔히 (동학)농민군이라 호명하나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이들을 ‘동학군’ 이라 총칭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다중적 정체성 가운데, 貧農·雇農이라는 계급적 성격보다는 ‘起包한 東學 都中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1894년의 동학군은 내전이나 혁명에 참여한 인민(혁명)군이 아니라 동학의 종지인 輔國安民, 즉 上輔國家 下安濱死民生(4월 14일 동학당 통문), 上輔國家 下安民庶(「시경군 영병」) 등을 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起包한 東學 都中, 달리 표현하면 東學 都會와 義擧에 참여한 東學 儒生(=學生)들이었다. 1894년 어셈블리 당시 집단포덕, 또는 勒道가 성행했다는 사실은 모든 동학군이 어떤 형태로건 入道 과정(入道式)을 거친 동학도였음을 시사한다.⁵²⁾ 동학, 혹은 동학 어셈블리의 위대함은 ‘관병대장’ 이나 ‘유도수령’ 은 물론이고⁵³⁾ ‘無賴潑皮’ 나 ‘盜賊사람’ 들조차도 도인화(=동학군화) 했다는 것이다. 1894년 어셈블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짜(僞)였건 진짜(眞)였건, 모두 보국안민의 종지를 실천하기 위해 입도한 동학도이자 동학군이었다.⁵⁴⁾

51) 동학군이라는 호명이 보이는 사료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당시의 일본 신문, 그리고 오지영의 『동학사』, 권병덕의 『갑오동학란』, 그리고 『석남역사』, 『일사』, 『봉남일기』, 『조석헌역사』, 『臨瀛討匪小錄』, 『남원군동학사』 등이다(<한국사 DB>).

52) 勒道는 1894년 어셈블리의 퇴조기에 성행했는데,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양반 사족이나 이향층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질 것을 강요(강제)하는, 달리 말하면 일종의 投名狀을 요구하는 행위였다.

53) 공주 접거 투쟁을 앞두고 논산에서 전봉준과 연대한 ‘관병대장’ 김원식, ‘유도대장’ 이유상도 입도한 동학도이자 동학군이었다. ‘공주창의소 의장’ 이유상은 물론이고 『오하기문』에 따르면 전여산부사 김원식도 입도하여 4개 읍의 대접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54)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은 크게 보면 접주들이 지휘 통제하던 일반 동학군과 領率將 혹은 火砲領將이 지휘하던 포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는 공주 점거 투쟁 시기 도 마찬가지였다. 접주의 지휘 통제하에서 활동한 일반 동학군은 무기를 휴대하고 있기는 했으나, 일본군이나 관군과 교전을 벌이기 위해 조직(편성)된 군대나 병사가 아니라 起包한 東學 徒衆이자 일종의 무장시위대였다. 공주 점거 투쟁 시기 남북접 동학군의 주요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위한 거사(의거)라는 대의 명분, 애국적 사민, 충의지사, 특히 관군과 주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동학군의 뜨거운 함성이었다.
- 1894년 이전 시기의 동학도와 1894년 어셈블리 과정의 동학군, 정체성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추론, 상식적이다. 게다가 동학군, 혹은 동학농민군의 다중성도 주목해야 한다. 정체성 논의 과정에서 한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어셈블리 투쟁, 사건과 사건의 연쇄 중첩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문화도 바뀔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어떻게 변했을까? 인민·민중의 형성, 민족·국민의 형성, 정체성의 변화를 따질 때, 주목해야 한다. 무장 포고와 진보회 취지서, 양자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럴 때도 단계적 발전론, 특히 계승발전론, 경계해야 한다.

■ 공주 점거 투쟁의 실패 원인과 결과

- 남북접 동학군이 공주 점거에 실패한 이유는, 교과서나 개설서의 서술처럼 일본군의 최신식 무기, 동학군의 무기 열세, 훈련 부족과 전술 부재 때문이 아니라, 동학군 스스로가 모이고 모으는 정치적 힘,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협동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학군은 2차 봉기 시기 애국적 사민, 충의지사의 참여, 특히 경군과 영병의 내응, 이교와 시민의 호응을 호소하였으나, 이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 권병덕은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라는 童謠를 “東學亂이 甲午年에 成功을 하여야지 만일 甲午年이 지내고 乙未丙申에 다다르면 東學은 失敗된다는 말이다”(「갑오동학난」)라고 새겼는데, 필자가 좀더 부연하면, 이는 “동학이 성공하려면 갑오년에 愛國的 士民, 특히 충의지사들이 동학군과 함께 가보세 가보세를 부르며 擧義(起義)해야 했으나, 거꾸로 반동학군 활동을 오로지했을 뿐 아니라, 뒤이어 을미년에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밍기적 밍기적대다, 단발령과 민비시해 사건 등으로 항일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병신년에 창의랍시고 傭兵들을 동원하여 잠시 설치다가, 결국은 자신들도 ‘병신(義匪)’ 소리나 듣게 될 것이다, 또는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⁵⁵⁾

- 동학의 사상과 조직, 특히 교조화, 교단화 과정, 또는 어셈블리 투쟁 과정에서 심화된 吾道(吾敎)의식, 또는 주문과 부적을 활용한 각종 동학식 의례와 의식들은 고조기에는 투쟁의 힘이자 디딤돌이었으나, 퇴조기에는 짐이자 걸림돌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多衆)은 함께 주문을 외우고 동학식 의례에 참여한 동학도이자 동학군이였다. 동학 어셈블리가 고조기에 달했을 때 주문과 의례는 당연히 어셈블리의 힘이자 디딤돌이었다. 하지만 연대투쟁이 필요했던 시점, 특히 퇴조기의 경우, 이런 동학식 의례와 의식들은 짐이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공주 점거 투쟁 시기, 특히 1차 접전에 실패한 이후 남북접 동학군은 척사유생들과의 연대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주민(민중)들로부터도 고립되는 현상을 보였다. 호서와 호남 가릴 것 없이, 勒道 현상이 심해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을 강조하는 불쇄비키 혁명론, 또는 근거지론이나 유격전론 등을 강조하는 중국혁명론에 근거하여 동학군의 한계와 오류를 강조하는 견해도 영뚱하기는 매한가지이다. 1894년 어셈블리 당시 각자기포한 동학군은 남접이건, 북접 교단이건 중앙지도부의 휘하에서 활동한 예하 부대(subordinate force)나 方面軍이 아니었다. 연원제에 기초하여 형성된 각각의 포점은 기본적으로는 회립자생하여 자경보위를 실천한 자율 조직이었다. 뿐만 아니라 갑오년 60만을 칭했던 남북접 동학군은 중국의 인민혁명군과는 달리 변방의 근거지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 핵심부인 都會地(완영, 금영, 남영, 해영)를 점거하는 투쟁을 전개했는데, 핵심적인 방법은 집회와 시위, 즉 어셈블리(모이기/ 모으기 = 기포와 도회·의거) 그 자체였다.
- 1894년 어셈블리 이후 살아 남은 동학 지도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조건들을 통찰하며 교조신원과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1898년의 영학운동이나 1904년의 갑진민회(진보회·일진회)운동은 과거의 사상과 노선을 고스란히 계승한 동학 여당(잔당·여열)의 투쟁이 아니라, 1894년 어셈블리에 대한 그 나름의 평가(성찰)와 반성 가운데서 출현한 새로운 주체들의 또다른 사건이었다. 1904년 갑진민회운동 시기까지 진보회와 일진회는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 기치를 앞세웠으나, 이후 보호조약 찬성론, 혹은 政合邦論 등을 표방하면서 동학의 종지(동학 혹은 동학군의 정체성)는 자연스럽게 내파(implosion)·폐기되고 말았다. 천도교와 시천교가 등장한 것은 이런 와중에서였다.
- 1904년 어셈블리 때 진보회(일진회)가, ▲ 1894년 어셈블리 당시의 도회·의거 경험, 특히 독립협회의 만민(관민)공동회, 또는 연설회·토론회 경험을 반영하여 민회(도회)를

55) 갑오년 애국적 사민, 또는 충의지사들이, ‘가보세 가보세’를 부르며 전국 각지의 都會地에 모여, 동학군과 함께 차이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경사대도회=만민공동회=13도창의대진소=국민대표회의)을 성취할 수 있었다면, 향후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朝家 密敎든 대원군 밑지든 계기와 동력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노성과 부여 유생, 더 나아가 호서노론과 영남유생 전체가 倡義하고, 이와 동시에 남북접 동학군이 공주를 점거(호서도회 혹은 양호대도회 개최)한뒤, 최익현 등을 領袖(會盟主)로한 전국적·전민족적인 抗日義陣(=민족 통일전선)을 구성할 수 있었다면, 향후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상상만으로도 감응이 넘친다.

개최한 것 ▲ 1894년 어셈블리 때 흔히 발생한 민중들의 자발적(우발적)인 무장투쟁이나 폭력행사를 견제·통제하며 철저히 비폭력 노선을 추구한 것⁵⁶⁾ ▲ 민회 활동의 목표로 등소나 국왕직소, 정치담판이나 협상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정치 참여하는 수단으로 정당 및 의회를 설립하는 투쟁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 충군애국론을 표방하며 조야 유생(충의지사), 혹은 애국적 士民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활동보다는 문명개화세력 혹은 망명 반정부세력과의 연대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 ▲ 그간의 항일(무장투쟁) 노선을 폐기하고, 동양평화론에 기초하여 일본과 타협하는 새로운 투쟁노선을 선택한 것⁵⁷⁾ ▲ 척양척왜론을 폐기하고 동학의 종지인 보국안민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문명개화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 등은 1894년 어셈블리에 대한 그들 나름의 반성과 성찰에 기초한 그들 나름의 선택과 결정이었다.

■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역사적 의미>

- 남접집단이 1894년 어셈블리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호남 동학군의 1차 봉기(농민전쟁)와 2차 봉기는 1892년 10월경부터 십수년간 진행된 동학 어셈블리의 연장선상에서 그 성격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사건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접·호남 동학군의 농민전쟁은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또는 우연과 필연의 교차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남북접의 갈등과 대립을 불변의 상수로 전제하거나, 남접·호남만 변혁세력이라 강변하는 것, 무리이다.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배경, 전개양상, 성격과 의미 등을 사건사적으로 재현하려면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의 전체 과정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
- 스월에 따르면, 기존 구조들의 힘, 특히 표준 절차와 제재(standard procedures and sanctions) 때문에 ‘단일의 고립된 파열localized ruptures’ 이 즉각적인 구조 변형을 가져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길게 보면 구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부적인 파열은 항상 구조적 변형(structural transformations), 즉 문화적 도식의 변화(cultural schemas), 자원의 이동(shifts of resources), 새로운 권력양식의 출현 등을 야

56) 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 > 駐韓日本公使館記録 22권 > 一二. 馬·釜·木·群往來 > (2) 進歩會員이라 부르는 韓民 집합 건에 관한 具報(1904년 10월 15일; 在全州 群山分館主任 横田三郎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별첨문건 [上件에 관한 忠章의 수사 내용] 私信. “이번 동학당이 일어난 것은, 손에는 寸鐵도 갖는 것을 금하고, 다만 刃血이 없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경성에 집합하여 정부와 담판해서 정치 개혁과 民權을 자유롭게 신장하고, 또 경성에 政社라고 부르는 것(貴國에서는 衆議院과 같음)을 설립하여 외국인에게는 방해하는 일은 엄금한다는 목적입니다만, 모두 小生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도저히 이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57) 대동회라는 명칭을 중립회로 바꾼 것은 손병희 등 동학지도부가 처음에는 대동단결만 강조했다가, 이후에는 러일전쟁 전후 시기 등장한 중립화론을 반영하여 국외 중립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중립회를 진보회로 바꾼 것은 러일전쟁의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자 중립보다는 아예 친일노선을 선택하였다는 것 등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이같은 명칭 변화는 1894년 어셈블리의 실패 경험, 특히 청일전쟁의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척양척왜론, 항일의려론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군은 물론이고 관군과 의병들이 주도한 집단학살 피해만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성찰과 반성의 결과라 여겨진다.

기하는 연쇄적인 추가 파열을 일으키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론에 근거하여 스윈은 프랑스 혁명을 역사적 사건(a historical event), 즉 동시대 사람들이 주목할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조의 지속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연속되는 일련의 사건들(a ramified sequence of occurrences)이라 규정한 바 있다. 단일 사건으로서의 1894년 동학 어셈블리, 특히 남접호남 농민군이 주도한 농민전쟁은 미숙했기 때문에 패배하고 실패했으나, 분명 내전이나 혁명에 준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좀더 긴 시야에서 동학의 탄생과 소멸, 특히 동학 어셈블리(1892-1904) 전체 역사, 즉 어셈블리의 고조와 퇴조의 과정을 일종의 多事件(eventful)으로 간주하는 경우, 동학 어셈블리는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하다.

- 갑오·을미년 민중적 의리론인 보국안민론과 유생들의 절의론인 충군애국론이 서로 충돌하고 경합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동학 여당의 을미의병 참여론이나 의적화론’은 國史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을미의병 주체들은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의 연대 호소(항일의려 형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반동학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양자 사이에서 벌어진 패거↔의거 논쟁은 조선왕조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특히 인민, 혹은 변혁 주체 민중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어셈블리 자체의 정치 효과(수행성), 또는 집단학살 등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조선왕조 사회의 통치체제나 지배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정치문화 자체에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학군이 국왕 또는 조야유생들과 벌인 패거↔의거논쟁은 대과국의 서막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의거↔패거 논쟁은 어셈블리 과정에서 민중들이 스스로를 王化와 牧民, 혹은 보국안민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대과국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에도 이른바 인민(peoples; 민중), 즉 인민 주도의 의회 및 정당 설립 투쟁(1904년 갑진민회운동), 또는 민주공화제 국가 형성 투쟁(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 1894년 어셈블리 당시 동학군은 척사유생(충의지사)과의 연대를 모색했으나, 1904년 어셈블리 때는 독립협회 세력(또는 일본 망명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의회 및 정당 설립 투쟁을 목표로한 민회 설립(어셈블리) 투쟁을 전개하였다. 1904년 갑진민회운동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와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 어셈블리 경험, 예를 들면 ▲ 대규모의 군중 집회와 (무장) 시위 경험 ▲ 감영과 경사 등 특정 장소를 점거해 본 경험 ▲ 국왕과 정부 혹은 외국 정부(공사관)를 상대로 한 국왕직소(헌의)와 등소 경험, 직접적인 협상과 담판 경험 ▲ 차이를 넘어선 연대와 협동의 경험, 그리고 이와는 결이 다른 ▲ 국왕과 정부의 파병 요청에 따른 외국 군대의 개입과 주둔 경험 ▲ 뒤이은 외국 정부의 정치간섭과 이권개입 경험 ▲ 국왕과 정부와 조야 유생들의 억압가 수탈, 부패와 무능에 대한 경험 ▲ 민보군이나

보부상 단체 등의 탄압(정치공작)과 집단학살 경험 등을 반영한(총화한) 투쟁이었으나, 이 또한 대중적지지 기반이 취약하여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 1차 봉기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남접 지도부와 호남 동학군은 공주 점거투쟁에 실패한 이후 큰 타격을 입었으나 북접교단 지도부는 최시형, 손천민 등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 처형되기는 했으나, 공주 점거투쟁을 주도한 손병희 등은 관서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한뒤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투쟁을 주도한 일부 세력과 연대한 뒤 1904년 9월, 10월경 재기포(갑진민회운동)를 단행했다. 그 중간 무렵인 1899년 5월 발생한 영학당 사건은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운동, 특히 의회 설립 투쟁이 가진 대중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후의 동학 어셈블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⁵⁸⁾ 고부 만민회 이후 이화삼 등이 都所(執綱所) 등을 매개로 농민자치를 구현하지 않고, 쫓아냈던 군수를 다시 불러들임과 동시에 영학군을 스스로 해산(?)한 것도 1894년의 집단학살 경험이 반영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 갑진민회운동의 주요한 특징은 1894년 어셈블리 때와는 달리 정식으로 정당과 민회(의회) 설립을 표방하며 어셈블리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1894년 남접집단이 주도한 동학 어셈블리는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건과 사건의 연쇄와 중첩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갑진민회운동 시기 진보회원의 평양 점거⁵⁹⁾는 1차 봉기 시기 동학군의 전주성 점거 못지 않게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다. 십수년간의 동학 어셈블리 과정에서 인민이 형성되고, 정당이나 의회 설립 투쟁이 활성화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1894년 <무장 포고문>과 1904년 <진보회 취지서>를 비교하면, 십수년간의 동학 어셈블리가 어떤 변화를 결과했는가,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어떻게 뒤바꾸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무장 포고문> “民爲國本本削國殘 不念保國安民之策 …豈其理也哉. 吾徒雖草野遺民 食君土服君衣 不可坐視危亡 八路同心億兆詢議 今舉義旗以保(輔)國安民爲死生之誓” ,

<진보회 취지서> “대저 국가는 인민들로 구성되는 것이요, 인민들은 국가 사회

58) 1894년 사건 이후 동학을 하던 이들이 서학, 영학 등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단순한 가락이나 위장이 아니다. 동학의 개방성, 즉 유불선 회통론처럼 사세 사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時運·時勢論, 또는 時中·權道論의 산물일 수도 있다. 보국안민을 위한 일(길)이라면 동서양의 모든 도와 교와 학을, 모든 학문, 모든 외세를 실천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심지어는 필요하면 동학조차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최제우의 가르침이었다.

59) 羅龍煥, 「甲辰改革實話, 大洞江을 警務廳 삼고, 民廳에서 呼令하건 이야기」, 『별건곤』 제4호, 1927년 참조. 1894년 어셈블리 당시 전주와 공주가 동학군의 중심무대였듯이, 1904년 갑진민회운동의 중심 무대는 평양과 해주였다. 당시 진보회가 경사직향을 표방했다는 사실은 9월 중순 경 평남 각군 상황에 대한 평남 관찰사의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1904년 9월 17일 平安南道觀察使 李重夏가 議政府議政 閣下에게 올린 보고(一進會라 칭한 東學徒의 順川 집회 상황 보고 件] 報告書第38號)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관할하고 있는 順川郡守 李承周의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동학도 천여 명이 본 군청 앞에서 회의하여 말하기를, 一進會라 하면서 旗號에서 ‘輔國安民’ 4자를 쓰고, 會長은 즉 海州에 사는 文貫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다시 京城會社(大都所 一필자)의 통지를 기다렸다가 진퇴한다 하오며, 저들이 말하는 京中通文을 封上한다고 하였습니다.”

가 있음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니, 진정 인민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국가로서 존립될 수 없으며, 사회는 그들 단체로 각각 형성하지 않으면 인민들은 인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다.”

- 위의 인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892년부터 시작된 동학 어셈블리, 특히 1894년의 공주 점거투쟁, 1899년의 영학 운동, 1904년 갑진민회운동 등은 조선왕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와 사회, 인민과 민중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04년 갑진민회운동에 실패한 이후 손병희 등이 창립한 천도교는 1919년 어셈블리 과정(민족대표를 모으고 독립 청원과 시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천도교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1919년 어셈블리는 십수년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와는 결이 다른 사건이었다. 1919년 어셈블리는 주권의 담지자인 인민(민중)이 형성되고 민주공화제 정부가 선포됨과 동시에 붉은(丹心) 청년들에 의해 전위당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19년 기미(독립만세) 어셈블리의 분수령적 의미를 따질때는, 인민의 형성과 더불어 동학이나 영학, 혹은 문명개화론을 대신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등장하고 공산당과 민족정당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894년 동학 어셈블리의 한계로서 전위당의 지도와 폭력 부족했다는 반성과 성찰,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으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斯世, 斯民, 斯學의 한계이다.
- 1904년 갑진 민회운동에 실패한 이후 북접교단 지도부는 政敎分離(일진회와의 결별, 정치적 중립)를 표방하며 천도교를 창립했는데, 이는 믿음보다 배움과 실천을 중시하는 동학, 혹은 동학군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상실해가는 과정이었다. 政敎雙全을 표방하며 일진회 활동을 지속한 시천교 집단도 마찬가지였다. 시천교집단은 일진회를 매개로 보호조약 찬성론, 정합방론 등 친일 노선을 실천했던 까닭에 대중적 지지를 상실한채 곧바로 소멸(분열)되고 말았다. 1919년 어셈블리 과정에서 천도교 세력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의 동학 어셈블리와는 그 성격과 의미가 크게 달랐다. 『동아일보』가 ‘조선 민중(=인민)의 표현기관’임을 社是로 앞세웠듯이, 3·1운동 전후 시기 다른 무엇보다도 인민(the people)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 역사의 큰 흐름은 내전과 혁명에 의해서만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은 민중들의 자발적인 어셈블리, 그 고조와 퇴조 과정에 따라 그 흐름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3·1운동 이후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 4·19 학생의거나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이 활기를 띤 것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사적 유물론, 단계적 발전론, 농민전쟁론이나 시민혁명론, 모두 다 한때는 의미 있는 이론이자 역사상이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이 변했다. 동학 어셈블리를 포함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어셈블리 투쟁사에 대한 因繼損益과 啓來가 필요한 시점

이다. 성취는 이어가고, 한계는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그리가 강조했듯이 어셈블리 투쟁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맺음말

- 앵겔스 류의 농민전쟁론이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었다. 하지만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을 강조하는 혁명론이 그러하듯이 농민전쟁론도 이제는 낡은 역사인식 방법이다.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동학 어셈블리, 심지어는 ‘k-어셈블리’ 라는 말을 써 본 것도, 전위당의 지도와 폭력보다는 민중들의 자발적·자율적인 어셈블리를 ‘전통화’ 해 보려는 의도 때문이다. 물론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전통화(박제화?)하는 것이 마냥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미래를 여는 역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전통, 특히 동학 어셈블리를 소환한 이유는 네그리의 주장처럼, 세상을 바꾸려면 다중의 모이고 모으는 힘, 더 나아가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동이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것은 내전이나 혁명, 특히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이 아니라 다중(민중)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어셈블리 그 자체였다. 게다가 그 때나 지금이나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꾸려면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동, 다중의 모이고 모으는 정치적 힘이 중요하다. 후속 연구의 부제를 ‘도회·의거 전통의 지속과 변용’ 이라 붙인 것도 모이고 모으는 민중(多衆)들의 정치적 힘, 즉 횡단적 접속을 통해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19세기 후반 십수년(1892-1904)에 걸친 동학 어셈블리(기포=도회·의거)는 영국·프랑스·미국혁명은 물론이고 러시아나 중국의 혁명만큼이나 커다란 우리의 역사 나름의 성취이자 한계였다.
- 사회변동론을 탐구하는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우리 역사의 경우 내전과 혁명이 부재했다거나 늘 실패했다는 이유로, ‘조합주의(Corporatism) 사회론,⁶⁰⁾ 또는 강한 국가(strong state)/ 약한 사회(weak society) 또는 투쟁하는 사회(contentious society)론⁶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또한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을 강조하는 변혁주체 민중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치 문화, 특히 19세 후반에 형성 발전된 도회·의거 문

60) 일제하의 농민운동이나 농촌진흥운동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신기욱은 ‘강한 국가 ↔ 투쟁하는 사회론’에 입각하여, 사회운동 갈등 → 이슈의 제도화 → 사회 변동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기욱, 『식민지의 사회운동과 역사변동』, 앞의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신기욱·한도현, 『식민지 조합주의 1932-1940년의 농촌진흥운동(『Colonial Coporatism: The Rural Revitalization Campaign, 1932-1940』),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편저, 도면희 번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 -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 2006, 참조.

61) 구해근·신기욱은 ‘weak’와 유사한 뜻을 가진 ‘contentious’라는 용어를 ‘도전하는’, 혹은 ‘투쟁하는’이라 번역하였으나, contentious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혁명적 폭력’을 구사하기보다는, ‘논쟁을 즐겨하는?’, 시끄럽게 떠들며 민원을 요구하거나 선거를 호소하는’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화에 대한 몰이해의 산물이다. 전위당의 혁명적 지도와 폭력이라는 신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대안적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기초한 집회와 시위, A/O 투쟁,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동의 중요성, 어셈블리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기억하고 확장해가려 노력해야 한다.

- 과거 역사를 통해 대안적 길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늘 현실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동학은 최제우나 최시형이 깨닫고 가르친 동학만이 아니다. 1894년 동학 어셈블리, 더 크게는 십수년에 걸친 투쟁 과정에서 동학군이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고, 실천한 동학을 더 중시해야 한다. 네글리와 하트의 『어셈블리』는 “다중이 모이면 무엇이 가능할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484쪽)라는 말로 자신들의 책을 끝맺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민중사(학) 또한, 민중의 과거 역사를 매개로 민중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자발적, 혁명적 흐름을 변혁의 동력으로 바꾸어내는데 기여하는 역사학, 또는 민중의 과거 삶을 소재로 민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변혁을 향한 새로운 촉발과 감응을 야기하는 역사(학)이다.

혁명적 농민운동론으로부터 어셈블리론으로의 변화에 대한 논평

도 면 회 (대전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지수걸 교수님은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중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후 일본의 식민통치기 공주를 비롯한 지역 사회사, 한국전쟁기 지역사, 역대 한국의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비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등 **한국사 연구의 실천성을 고양시켜온 진보적 연구자**이다. 그 과정에서 근 20여 년 이상 공주를 비롯한 충남 지역사를 연구한 결과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역사비평사, 2024)에 이어 오늘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후속 저서의 요약본을 주제 발표하였다.

2. 작년의 저서와 오늘의 발표는 중요한 논지를 제시했다.

작년 저서 내용에 더하여 을미의병, 독립협회, 영학당, 갑진민회운동, 1919년 3.1운동 등을 어셈블리론에 의해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대중 교양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느꼈다. 지 교수는 작년의 저서에 이어 본 발표에서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나 동학농민전쟁이 아니라 동학어셈블리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입론의 바탕으로, 조선시대 도회·의거,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기원, 남북접 연대의 시점, 우금티싸움에 앞서 효포 싸움의 의의, 동학군 사망자 수에 대한 비판적 재고, 1894년 10-11월 공주 점거 투쟁의 어셈블리적 성격 등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남접·호남 중심의 농민전쟁론의 한계를 밝혔다.

다만, 오늘 발표문에 붙인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제목은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운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1894년 동학 어셈블리’라는 개념이 성립해 있어야 한다. 오늘 이전에 지 교수의 연구 성과 외에 ‘1894년 동학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 성과는 없었다. 그렇다면 지 교수의 입론을 받쳐줄 제목으로 “1894년 (동학란/동학농민혁명/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어셈블리로 부르자”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3. 영어의 ‘Assembly’ 는 과연 ‘동학 농민전쟁’ 이나 ‘동학농민혁명’ 처럼 번역될 수 없는가?

지 교수는 1894년뿐만 아니라 1892년부터 1904년, 나아가 1919년까지 모두 ‘동학 어셈블리’ 로 이해해야 올바른 역사상이 정립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는 ‘어셈블리’ 란 다중(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주체)이 모인 정치적 결합체를 의미하는 개념이자, 이들 운동의 정치적 가능성을 인식하기 위한 렌즈, 즉 인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다만, 지 교수는 이 개념을 수용하여 사용하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번역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이 점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용해온 ‘혁명’, ‘농민전쟁’ 이란 말은 주지하다시피 ‘revolution’, ‘peasant war’ 라는 외래어의 한자어 번역이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확대되거나(revolution) 기준에 없었던 용어의 출현(peasant war)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이 용어(기표)는 대상 사건들(기의)이 과연 정치적 가능성이 있는 운동이었는지 아닌지를 인식하기 위한 렌즈로도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1894년 동학교도 대중이 참여한 사건을 ‘농민혁명’, ‘농민전쟁’ 이라고 하지만 과연 서구에서 말하는 ‘농민혁명’ 이나 ‘농민전쟁’ 기준에 걸맞는 사건이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assembly라는 용어의 번역어로서 ‘집회’ 가 오해의 여지가 크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번역어로 정착시키는 연구자들 사이의 작업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그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번역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용어에 대한 다수의 번역어가 대립 길항 조정하는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최재천 교수가 conciliation 이란 영어단어를 ‘통섭’ 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 용어는 이미 불교계에서 조선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말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5세기 영국에서 ‘가정의 경영’ 을 뜻하는 economy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이 용어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理財’, ‘生財’, ‘經濟’ 등으로 번역되다가 거의 20여 년이 걸려서야 ‘경제’ 로 통일되어 갔으니, ‘경제’ 로 통일되어간 ‘부국강병’ 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 교수가 1894년 사건에 대해 ‘어셈블리’ 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한지, 번역어로서 ‘집회’, ‘점거투쟁’ 등이 적절할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용어를 번역한다면 ‘다중집회’ 정도로 번역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어셈블리 사용의 시간적 범위는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는 보통명사에는 통상적으로 사건의 시대적 범위가 존재한다. 예컨대 왕건의 궁예 축출과 고려왕조 개창, 이성계의 고려왕조 멸망과 조선왕조 개창을 모두 역성혁명이라고 한다. 4.19는 시민혁명이라고 부르지만 박정희의 5.16은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혁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네그리식 표현에 의하면 4.19는 어셈블리라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세 개의 사건은 어셈블리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네그리와 하트의 ‘어셈블리’란 “현대의 사회운동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18~19세기 혁명과 내전으로 점철된 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고 병존하는 20세기 후반 이래의 대중 집단 모임, 또는 이를 이끌어가는 민주적 정치를 전망할 수단으로 제시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20세기 후반부터는 대중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주어졌고, 자신들의 언어로 이를 표현할 만큼 주체의 발화 능력이 고양되어 있다. 예컨대, 최근 내란사태에 대한 탄핵집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초중고등학생, 여성, 노동자, 자영업자, 또는 ‘키세스’로 표현된 밤샘농성 대중 등이 보여준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이 책에서 논의되는 남북접 동학군의 경우 한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는커녕 한글로도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연 1894년 한국사회의 대중이 그만큼의 기본권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까?

또한, 1894년 공주에서의 싸움을 어셈블리의 한 형태였다고 규정하려면, 그 싸움이 흥선대원군, 최시형, 손병희, 전봉준, 김개남 등 특정한 인물의 리더십과 관련 없이 다른 방식의 리더십에 의해 전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 교수의 작년 저서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발표에서도 그렇듯이 1894년 이후 1919년까지 동학/천도교/일진회의 움직임은 항상 근대적 리더십/권위적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 아닌가? 이를 네그리/하트가 언급한 어셈블리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충설명을 부탁드린다.

5. 동학 어셈블리를 주도한 집단과 그 목표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네그리/하트의 입장에서 볼 때 ‘1894년 동학 어셈블리’는 연속된 사건의 명칭이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반면, 지 교수는 ‘동학 어셈블리’를 리더십, 즉 사건을 이끌고 간 지도력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의 시간적 연속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 교수의 어셈블리 개념 용례에 따라서 지 교수의 전작 저서나 이번 발표 전편을 볼 때, 1894년의 동학 어셈블리는 어떤 사회적 집단이 무엇을 위해 수행한 사건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그는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점거투쟁’은, 충군애국심을 가진 사민, 특히 중앙군·지방군의 내용과 향리·상인의 호응을 토대로 공주를 점거한 후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과 조선 정부를 상대로 정치 담판을 벌이려 한 항일의려 사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학/

천도교와 관련하여 1862년부터 1919년 3.1운동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민중 집회와 시위를 동학 어셈블리라고 규정하였으며, 특히 공주 점거투쟁이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대과국의 서막이라고 하였다. 나아가서 이 사건은 충군애국심을 가진 사민, 특히 중앙군·지방군의 내용과 향리·상인의 호응을 토대로 공주를 점거한 후 경북궁 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과 조선 정부를 상대로 정치 담판을 벌이려 한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발생한 전국의 수많은 동학군 봉기도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과 국왕 능멸에 분노하여 발생한 동일한 ‘항일의려’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관군 측에서는 동학군 참여 세력을 분석하면서 ‘가짜 동학당’으로 구분한 인민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자, 강도·절도 기타 범죄자, 무직자, 지방관에 원한 품은 자, 당오전이 1푼이 되자 손해를 입게 되어 분노한 자, 사금 채집 광부 등” 또는 “부적과 주술로 세상을 속이려는 자, 재기는 있지만 뜻을 못 편 자, 경향의 무단 협박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자, 나라에 죄짓고 피해 다니는 자, 반항하면서 유랑하는 자, 농업이나 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 자, 부채에 건디지 못하는 자, 상천민으로서 발신하려는 자”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리들의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은 소위 ‘늑도’라는 이름하에 제외하고, 다만 항일애국지심을 가진 자들의 점거투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네그리/하트가 비판적으로 지적한 ‘지도층 중심의’ 전통적 리더십 관점이 아닐까? 또는 최시형만이 일본군과 관군의 폭력에 대응한 자기방어이자 일종의 윤리적 대안을 제시한 점거투쟁의 지도자라고 규정하는 편향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6. 동학 어셈블리의 투쟁 양상을 왜 전투가 아니라 점거/담판으로만 보려 하는가?

어셈블리를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공간을 점거하고 정치적 담판을 하는 수준의 다중의 행위”라 규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지 교수의 발표 내용에도 나오듯이, 지배권력의 대응에 따라 손쉽게 내전이나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기 이전 프랑스 평민 대표들이 결성한 국민의회 결성과 세금 불납 선언, 1905년 1월 러시아혁명 직전 급료를 올려달라는 청원을 하기 위해 니콜라이 2세에게 청원하러 가던 노동자 대열의 행진, 같은 1905년 포츠머스강화조약 이후 도쿄 히비야 공원에 모여 러일전쟁의 보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대중 집회 등은 모두 처음에는 지 교수식 ‘어셈블리’였으나, 국가권력의 탄압으로 인해 혁명 또는 내전 등으로 전개되었다.

지 교수는 1차 봉기든 2차 봉기든 모두 핵심적 코드는 행진과 점거에 그쳤다고 하면서도 황토현·장성싸움은 의도적 목적의식적 전투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 방어적 접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동학군 무기는 살상용이 아니라 방어용 혹은 시위용, 소총수(‘포군’)들의 폭력도 대항폭력이라고 하였다. 수많은 민중 봉기 사건에서 공격과 방어, 살상용 무기와 시위용 무기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동학군이 시위/점거/담판을 목표로 봉기했다고 하더라도, 관군과 조선국왕 요청으로 출동한 일본군이 행진 시위와 점거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전투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 지 교수는 2차 봉기가 전체적으로 비전투적 행위에 치중했기에 동학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동학군의 무기가 전통적 도검, 죽창 등에 불과하고 근대적 소총·기관총·대포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동학군의 선진 무장대에서 화포영장은 설사 동학 접주가 아니어도 총만 잘 쏘면 대우한 것을 보더라도, 동학군이 시위/점거를 핵심코드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결과만 놓고 볼 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로 직항하지 않았지만, 일본군·관군 연합군과의 공주점거투쟁이 성공했다면 이 어셈블리가 서울을 점거하고 기존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국가권력을 탄생시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우 우리는 이를 ‘혁명’ 또는 ‘내전’ 이라고 부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 교수의 어셈블리론은 ‘실패한 혁명’ 이기에 결론론적으로 ‘어셈블리’ 로 명명한 것 아닌가? ‘성공한 혁명’ 이라면 결론론적으로 ‘혁명’ 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는가?

7. 동학군의 제2차 봉기는 과연 자생적 어셈블리였으며, 남접·북접은 연대했는가?

지 교수의 전작 저서에는 공주 점거투쟁의 두 세력 중 전봉준·김개남 등의 남접·호남 동학군의 재기포는 북접과 관련 없고 대원군의 밀사 또는 이준용 주도 쿠데타 기획에 호응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전봉준의 남접·호남 동학군과 북접의 연대가 1894년 9월 그믐께라고 하였는데 전작 저서에는 왜 그 시기에 그러한 연대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공주 효포싸움에 실패한 동학군이 전봉준의 진심에 감동하여 최시형의 유시를 어기고 우금티 싸움을 기획하고 실천했다든지 등의 정황적 설명만 존재한다.

1960년대 이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사회의 중세적 체제를 변혁시키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쳐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사상이자 혁명적 사건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러했기에 동학군의 ‘갑오변란’ 에 대한 인식이 흥선대원군 또는 양반 유생과 유사한 측면은 애써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의 연구에서 흥선대원군 또는 그 손자 이준용이 동학농민군을 북상시켜 일본군과 개화파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했던 사건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 교수가 밝혔듯이 전봉준 등 남접 지도부의 재봉기는 흥선대원군이 보낸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동학 지도부와 접촉했던 시점 이후이다. 게다가 제1차 봉기 단계에서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 중에는 “흥선대원군을 국정에 간여할 수 있도록 하면 민심이 안정될 것” 이라는 항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교수의 저서에는 대원군과의 밀약설, 조가(朝家)밀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리라 본다.

8. 어셈블리론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 교수의 동학 어셈블리론은 얼핏 들으면 다소 황당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동학 다중집회’ 라고 번역해서 보면 그 의미가 비교적 분명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1894년 봉기를

비롯하여 그 이전 1891년부터 1919년 3.1운동에 이르기까지 동학/천도교의 집회에는 진정한 동학 종교인뿐만 아니라, 이 종교집회를 통해 임신출세 또는 사회적 경제적 구원을 받으려는 가짜 종교인들도 다수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셈블리론의 ‘다양한 사회적 주체, 계층 등이 참여하는 역동적 집회’ 라는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동학/천도교 집회가 교단조직 또는 특정 세력의 수직적 지휘와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전통적인 집회 또는 사회운동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셈블리론이 정착할 경우, 기존의 ‘혁명’ ‘내전’ 을 어셈블리 진행 중의 단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명’ ‘내전’ 등 전통적 개념을 이용한 역사서술방식이 사용 되는 이유는, “역사는 언어로 구성된 기념비적 국가·민족 서사” 라는 관념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정 토론문 ②>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논평

유 바 다 (고려대학교 교수)

논평 : 지수걸, 2024,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역사비평사

2025.2.11

유바다(고려대)

1. 연구의 의의

- 이병규, 2003,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맹수, 2011,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모시는사람들
- 이래 장기 공백 이후 출간한 전문 연구저서
- 기존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을 “넘어서는” 시도
 - 동학농민군 → 동학군(꾼)
- 안토니오 네그리, 『어셈블리(Assembly)』 이론에 입각한 ‘모이고 모으자! 점거하고 담판하자!’ 공주 점거투쟁론 제시
- 공주 중심 호서 지역 동학군 본위의 공주 점거투쟁 실증
- 호서 지역 동학교단의 구체적인 움직임 및 의도 파악
- 일본군, 일본공사, 갑오정부, 대원군 등을 아우른 입체적 시각

2. 『전봉준 공초』 중 전봉준의 의도(6쪽)

- “공주(충청감영=都會之處)를 전격적으로 점거한 뒤, 의려(義旅)를 규합(糾合)하여 농성전을 벌이며(確據·固守, 相持하며), 일본군에게 격(檄: 大義布告)을 전하여 정치담판(請問·詰問)을 벌이려 했다”

- 請問·詰問을 정치담판으로 볼 수 있는가?

- 義旅는 군대, 接戰은 전투-'말 잡기 투쟁'만으로 볼 수 있는가?

3. 전봉준軍, 즉 동학군(군)으로 표현(19쪽)

- 군대, 전투를 탈피하고자 하였으나 軍이라는 표현의 문제

4. 기존 연구들은 교조신원운동을 1894년 어셈블리의 '전 단계'로 간주하나 어셈블리, 점령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갑오년의 도회와 의거는 교조신원운동때부터 본격화(132쪽)

- 1894년 무기 사용, 편제 구성, 전투 행위의 차별성

5. 삼례 재기포 당시에도 호남 동학군이 구병입경이나 기병부경을 호언하며 식량과 무기를 모아들임(192쪽)

6. 9월 18일 기포령에 따라 호서의 동학도는 최시형의 지시대로 국왕직소를 실천하기 위한 어셈블리, 점거 투쟁(199쪽)

『시천교종역사』: 최시형, “그대들은 가서 전봉준을 만나 폭거를 중지하고 마음을 바꾸어 도모하면 ...”(폭거중지 핵심개도 유시)

- 동학교단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한해서는 이해 가능

7. 전봉준이 자신들을 先王의 赤子라고 지칭(228쪽)

- 유교적 士 의식의 발로이긴 하나 본질적으로는 변혁 추구

8. 효포싸움의 시위적 성격(277쪽)

- 거화투쟁, 흥개를 씌운 대교를 타고 무장시위를 주도
- 1894년 4월 전주 점령 당시 아기장수 이복용의 퍼포먼스
- 무장력이 빈약한 농민군의 전형적인 전술

9. (289쪽)『시천교종역사』: 전봉준이 개연히 탄식하며 말하길 “봉준은 사문의 도제가 되어 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지럽혔으니 곧 사문의 죄인이요, 관창에서 곡식을 꺼내고 관리를 살해하였으니 국가의 죄인이요, 백성들의 재물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국민의 죄인이다. ... 제군들은 선후책을 더욱 강구하여 선사의 원통을 씻어드리고 생민의 상처를 구료할 것을 기하도록 하자” 손병희가 각포 두령에게 謂하여 왈 전봉준이 이미 회개하였으니 별남접의 기호를 改하노라 하고, 更히 척왜양창의기를 건하다.

- 자료의 신빙성, 개연성, 교차검증의 문제

10. 공주 점거에 성공한 뒤 호서도회, 또는 양호대도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 어셈블리, 점거 투쟁 과정에서 남북접 동학군을 넘어서는 더 큰 연대와 협동의 성사되었을 가능성(365쪽)

- 동학군과 척사유생 간의 항일연대는 정녕 불가능?(369쪽)
- 세계관의 차이로 화해 불가능
- 전봉준의 유교적 士 의식, 이유상의 半儒半東 성향 분석 필요

11. 남북접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언한 뒤에 벌어진 각종 충돌 사건, 일본군과 관군의 집단학살 사건조차 전투라 호명하는 것은 역사조작을 넘어 왜곡(413쪽)

- 동학농민군은 “적의 침입이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할 것, 그리고 전쟁 법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민중봉기(mass uprising)의 전투 자격을 인정”하는 “민병대”적 성격 보유

12. 안토니오 네그리, 『어셈블리(Assembly)』 이론

- Assembly : “모이고 모으자!” - 民會, 都會, 集會
- (426쪽) 보은도회 주체들이 “저희들의 이 집회는 조그마한 무기도 가지지 않았으니, 이는 바로 민회입니다. 일찍이 여러 나라에서 민회가 있다고 들었고, 조정의 정령이 백성과 나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근래의 일입니다” ☞ 내셔널 어셈블리(national assembly)와 유사
- 프랑스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추적 필요
- (441쪽) : 1893년 보은도회 이래 동학군은 자신들의 어셈블리를 도회이자 의거라 칭했다. 물론 왕조체제를 부정하는 주권재민 의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듭된 어셈블리, 점거 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민중세계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조선왕조 사회의 통치체제나 지배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역사의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뀐 ‘대파국’의 시작이었다. ☞ 왕조 사회의 민본론을 넘어 민권론이나 민주(공화)론을 지지하고 실천

<자유 토론문 ①>

‘1894년 동학 어셈블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 양 식 (前 청주대학교 교수)

◆ 연구 의의

- 20세기 형성된 농민전쟁론과 혁명론에 대한 문제 제기 --> 반성적 성찰 촉구
- A/O 신개념을 통한 한국근현대 민중운동사 재구성 : 민중들의 모이고 모으는 힘, 특히 차이를 넘어서는 민중들의 연대와 협동이 한국 근현대사의 커다란 흐름
- A/O 새로운 역사가치와 담론, 실천적 대안 제시
- 1894 대사건에 대한 고정틀과 개념 해체 --> 새로운 연구방향과 방법론 제시
- 특히 새로운 역사 기호(A/O)를 통한 1894년 대사건의 기포/기의 재개념화 유발

◆ 연구 쟁점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성격문제

<주장>

- 1894 동학 어셈블리는 1892년 10월 도회 때부터 활성화되어, 고부도회를 계기로 백산도회를 조직화함으로써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서막이 이루어짐
- 1.2차 동학농민혁명 모두 A/O투쟁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음
- 1894년은 내전이나 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이나 잠재성 없었음
- 1894년 동학 어셈블리 자체의 정치 효과로 조선왕조 대파국의 서막이 열림.

<쟁점>

- 1892-1894년 변혁운동을 동학운동으로만 접근, 동학 어셈블리로 단순화시킴
 - * 1892-1894년 군현단위 농민봉기 --> 동학 못지않은 A/O. 즉, 1892-1894년 도회 에네르지는 군현단위의 농민봉기임. 이것이 고부봉기를 계기로 동학 일부세력과 부분 연대하여 광역단위의 도회로 확대되고, 이것이 2차 때 동학과 완전 연대함으로써 전국으로 확대.
- 1차 동학농민혁명은 2차와는 성격을 달리해야 함. 동학세력을 남북접으로 이원화시켜,

- 호남을 남접 동학으로 보고 접근. 1차 봉기를 단지 행진이나 점거로, 황토현을 우발적 전투로 볼 수 있을까?
- 1894년 대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강고하였던 조선왕조체제가 1년에 걸친 동학군의 군사적 충돌로 체제가 금이 가고 이완되어 파국을 맞이하였다는 점. 그래서 체제내 저항세력인 민중이 민으로서 세상 밖으로 나온 점. 그것은 단순히 A/O를 넘어선 것으로, 모이고 점거한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히려 A/O보다 그것에 더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 1894년 대사건을 1892-1894 동학 어셈블리로 일반화하다 보니, 1894년의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왜소화시킴 --> 일반화의 오류(차별성, 특수성)
 - * 관아(군현관아에서 감영으로) 점령은 단순 점령이 아니라, 중세사회 최고 수준의 정치투쟁임. 관아는 고을 왕권의 상징. 민-<군현관아-감영-궁궐>-왕 사이 좁히기. 또는 <왕-신하-민>의 관계에서 <왕-민>의 관계로. 1894 동학이 <왕-민> 사이에 있던 신권 형해화시킴으로써, 만민공동회는 민이 왕 직접 상대.
 - 동학 어셈블리를 1904년 갑진민회운동으로까지 확대하여 계기적 주체 변화/발전과 민중의 성장과정을 단순화시킴
 - 조선왕조체제의 대파국의 서막이 열린 것은 동학 어셈블리 그 자체의 정치적 효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민중세력의 각성과 연대, 그리고 무력에 의한 강고한 체제 깨뜨리기가 있었기 때문. 어셈블리를 강조하는 것은 현상적 해석.

○ 동학군 성격문제

<주장>

- 기본적으로 집회시위군중임 --> 심지어 공주전투 동학군은 단지 무장시위대이지 농민군이 아님. 동학군은 살생이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관군/일본군 피해 최소화
- 동학 都會와 義擧에 참여한 동학유생(학생).
- 동학군이 중시한 활동은 무장투쟁이 아니라, 도회 그 자체.
- 공주 점거 실패는 동학군 스스로가 A/O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쟁점>

- 2차의 경우 집회시위군중으로만 볼 수 있을까? 9월 이후 일본군과의 많은 충돌이 전투적이었음. 공주전투는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전통에 따른 A/O투쟁일 뿐이며, 일본군을 진두지휘한 것도 일본공사관>이라는 주장이 설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방증자료가 필요. 19세기 후반 도회.의거 전통의 지속과 변용이라는 관점은 타당하나, 1894년의 특수성을 단순화/일반화시킴.
- 2차 동학군 스스로 반일의병으로 자처. 시위군중 성격에서 벗어나 있었음. 조선 전통

의 의병 이념. 10/16 전봉준 상서-임진왜란시 반일의병감정 표출. 상서에서 전봉준은 “천하에서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라고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

- 동학 어셈블리 정당화를 위한 동학군 성격규정이 아닌지 의문이며,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동학군은 집강소의 치안권을 장악. 순천 영호대도소는 6-10월 순천광양지역 동학군 해방구. 김개남은 8.25-10.14 실질적으로 남원지역 권력 장악. A/O 차원의 단순한 점거투쟁이 아님.
- 도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회 목적과 도회에 따른 운동 주체세력과 투쟁방식 전이과정 주목해야.
- 동학군의 A/O 역량 부족이 척사유생과의 연대 실패와 勒道 현상의 심화 때문인가? ---> 일본 침략과 보수유생의 문제를 왜 동학군 역량을 탓하는가! 농도현상도 보수유생들의 반동학군 움직임과 맞물려 나타난 것임. 작용과 반작용의 역학관계로 풀어야.

○ 역사적 사실 고증문제

- 필자도 주장하였듯이, ‘동학 어셈블리’는 근현대사의 큰 흐름인 A/O투쟁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역사화하기 위해 차용한 사건사 서술개념(규합개념)이다 보니, 일면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거나,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증의 문제를 낳고 있음.

많이 인용한 <<시천교종역사>> 사료 비판 요구됨. 시천교는 친일단체. 따라서 의도적으로 반일 표현 순화시킴. 이 자료속 유시를 전봉준의 폭거를 중지시키라는 ‘폭거중지 핵심개도’로 해석, 공주점거투쟁의 목표와 방법을 규정한 기본 전제이자 강령으로 본 것은 오류(52쪽)

10/16 전봉준 상서/11/12 전봉준 고시 ---> 이들 기록을 공주도회 근거사료로 제시하나, 실제 그런 내용은 없음. 고시에서 전봉준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당을 제압하여 조정을 태평하게 하고 사직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투쟁의지를 보여줌.

- 10-11월 공주 공격이 단지 호서도회를 통한 점거와 정치담판이 목적인가? ---> 많은 사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줌.
- 전봉준이나 남접집단이 동학 어셈블리의 한 주체일 뿐인가? 1894년 당시 동학은 단지 동학 중지인 보국안민을 배우고 실천하는 선생과 학생만 있었고 교조와 교단과 교인은 없었음
---> 동학을 輔國安民之學으로만 해석, 동학 도회(어셈블리) 중심으로 접근, 동학의 여러 요소 간과. 전봉준 등 호남세력을 남북접 동학 이원적인 틀속에 가둠.
- 전주화약이 자진 해산인가? --> 무기 들고 철수, 각 부대별 지역 순회

- 1차 봉기는 5/8 전주화약으로 종료되고, 6/21 갑오변란 이후를 2차 봉기라 할 수 있나?
---> 집강소기(6-8월) 전라도는 전봉준 주도의 민관협치 집강소체제(김개남도 소극적 협조) 성립/지속. 6.21 이후 충청도 감영과 호서선무사 정경원은 지속적으로 집강 설치 요구하고 최시형 법현도 동의. 그러나 동학도 개별분산적/자발적 도회 확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단위투쟁. 전국적인 반일항전은 9월부터(성격을 완전 달리함).
- 북접 동학군이 공주전투에 참여한 것은 10월 23일경.
---> 10월 15일경 전봉준-손병희 논산 남북접 합류설 부정 근거는? 10/28일 전봉준/손병희 처음 만나 우금치 주공격 논의 근거는?

1894년 동학 어셈블리(ASSEMBLY) 토론문

박 정 민 (전북대학교 교수)

지수걸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을 넘어 동학 운동을 “어셈블리(Assembly)” 라는 개념을 통해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전쟁사나 정치적 변혁의 역사 서술을 넘어,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도회·의거 전통과 연계하여 동학 운동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존의 “농민전쟁” 개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동학 운동이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이기/모으기” 투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방식의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참신한 주장을 했다는데 이 책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여쭙보고자 합니다.

1. 기존 연구의 한계와 동학 어셈블리 개념의 도입

기존의 동학 운동 연구는 남접과 북접,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의 전투와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투 중심의 사건사 서술이 강한 점을 지적하였고, 자연스럽게 호남 ‘농민군’ 중심의 사건사로 귀결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시각이 1894년 동학 운동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동학 운동을 단순한 봉기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수 년간 지속된 일련의 “어셈블리”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이 중에서도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이어진 동학의 다양한 운동을 “동학 어셈블리” 라고 개념화하면서, 이를 단순한 민란이나 혁명이 아니라 지속적인 집회와 담판, 협상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실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사건 중심적 접근과 달리, 동학 운동을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을 확장합니다.

기본적으로 토론자는 필자의 유연한 시각에 동의하지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필자는 1, 2차 동학농민운동을 동일하게 “어셈블리”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 토론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자께서는 8쪽에서 무장포고 이후 호남 동학군이 호남 각군을

돌며 행진(퍼레이드)를 벌인 것으로 보며 4월 27일 경 전주성을 점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황토현 전투를 포함한 다수의 전투/무력 충돌 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술한다면 황토현, 황룡촌, 전주성 전투 등이 단순한 모임과 점거로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A/O를 강조하다 보니 황토현 전투 등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농민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역사 서술 개념을 배타적으로 강조한다’며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각지에서 전개된 다사건적인 분석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술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농민전쟁이 어떠한 맥락에서 배타적인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없어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 공주 점거와 정치 담판

필자는 1894년 동학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공주 점거 투쟁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주 전투를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로 해석했지만, 필자는 이를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정치 담판을 위한 점거(A/O) 투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력이라고 앞서서도 밝혔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지만 토론자가 과문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우금치뿐만 아니라 이인, 효포 등지에서 전투 벌였던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농민군이 공주를 점령한 뒤 적극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 점거가 단순한 점거투쟁이 아니라 적극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필자의 주장대로 공주 점거를 정치 담판의 장으로 강조한다면 조선 조정과 일본군에 대한 반봉건/반외세의 맥락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3. 도회·의거 전통과 동학 어셈블리의 연속성

필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다중의 모이고 모으는 힘, 더 나아가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학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토론자 역시 그 취지에 동감하고, 필자의 주장처럼 민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변혁을 향한 새로운 촉발과 감응을 야기하는 역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회·의거 전통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필자는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회와 담판, 항의 시위 등이 있었으며, 동학 운동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보았을 때 농민군의 활동은 단순한 집회와 점거에 국한되지 않고, 심지어 보국안민을 기치로 천안 세성산, 청주성, 문경 석문, 대둔산 등 다양한 곳에서 일본군과 군사적 충돌까지 벌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정치적 협상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자칫 농민군의 희생을 간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군사적 성격을 비롯한 다양한 반론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수걸 선생님의 연구는 기존의 동학 운동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석틀로 해석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각 및 연구를 좋아하여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존 연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점도 좋지만 기존의 학설을 넘어서기 위하여 더 많은 사료를 보완하고, 논지를 강화하여 보다 다층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토론문 ③>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저작비평회 토론문 (가제)

왕 현 중 (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문 별첨

<자유 토론문 ④>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저작비평회 토론문

조 재 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1. 제목과 서론

- 1) 책 제목처럼 ‘공주 점거투쟁’을 중심으로 ‘남접·호남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를 제창하면서 논지를 전개한 이 책은 그간의 통념적 연구와는 달리 북접과 교단 지도부 중심으로 그간 소홀히 다루었던 천도교 자료까지 적극 해석하면서 입론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 서론에서 필자는 그간의 대체적인 통념인 ‘농민전쟁론’ ‘농민혁명론’과는 달리 1894년 봉기의 주체를 ‘북접 동학군’ ‘동학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민’을 생략한 이유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3) 특히 ‘농민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논자들에 대해 ‘엔겔스 류의 농민전쟁론’에 의거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논자는 중국의 태평천국과 비견되는 토마스 뮌쩌가 주도한 16세기 독일농민전쟁과 우리의 경우를 그대로 일치시키려 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걸맞은 대안이 부족한 현실에서 최대 공약수로 판단되는 용어의 잠정적 차용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 4) 이에 부연하여 1848~49년 유럽 각국의 시민혁명과 외세가 개입하여 운동을 방해하는 반혁명과 그에 대한 변혁 세력의 사례(특히, 헝가리와 이탈리아 시민혁명의 경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동학농민군 활동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보다 폭넓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제1부

- 1) 1부 1장에서 필자는 대원군 세력은 물론 고종과 민씨 척족 세력들도 ‘동학당 재연’에 관여한 것으로 보면서 진주병사 민준호, 임실현감 민충식, 부여 전 참의 민준호 등이 동학군과 결탁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상으로 보아 이들은 필자가 주장하는 ‘민씨 척족’ 이라기 보다는 단지 몇 명의 민씨였을 뿐 조직화 된 활동 사례로 보이지 않는다. 1부 2장의 논지에서도 민준호가 주도한 활동을 ‘부여의 민씨 세력’ 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이 또한 민씨 세력이라기보다는 민준호가 의병을 모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필자는 민씨 세력이 동학군을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그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해 평안감사 민병석이 일본군에 적개심을 드러내고 청국군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병석은 평안감사가 되기 이전까지 정계에서의 역할이 크지도 않았던 테크노크라트이자 삼방파(三房派) 중심의 전통적 여흥 민씨 척족과는 거리가 있던 인물이기에 하나의 세력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과한 해석으로 보인다.
- 3) 1부 2장에서는 일본 외무성 자료를 인용하여 호서지역의 임기준 집단이 충청감사 박제순과 ‘안민약조’ 를 맺고 자진 해산한 사실을 남접 지도부의 ‘전주화약’ 에 비견되는 모종의 약조를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민약조’ 는 향후 신변 보장 차 물침첩 등의 제공을 보장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한다. 문헌 기록상 이후 임기준은 더 이상 활동 사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제2부

- 1) 2부 1장에서는 전봉준의 삼례 대도소 통문, 영호 대접주 김인배의 충청대도소 소집 방문, 공주 호주대의소 명의의 거의 통문 등이 모두 이준용 세력과 대원군 밀지와의 연관 속에서 진행된 일련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삼례 대기포 이후 호남 동학군의 수세적 활동도 밀지 계획의 파탄 사실이 확인된 ‘역부족’ 의 절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밀지와 동학농민군 연관 문제는 그간 수많은 논자들이 다루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을미의병 관련 일부 연구에서 보이듯이 ‘고종 띄우기’ 의 큰 기제의 하나가 밀지이고 대원군도 그렇게 이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 2) 제1, 2차 봉기의 궁극적 목표는 서울에 만민소청을 설치하고 ‘국왕 직소’ 를 감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청국과 일본의 군사력 개입으로 상황이 이전과 다른 내외적 현실에서 다시 이전 광화문 복합상소 형태로 되돌아 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3) 필자는 위의 내용에 부연해서 서울진공작전에서 이인영이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군대 해산 이후 정미의병도 기존의 연구처럼 ‘무장투쟁이나 독립전쟁이 아니라 대의명분에 근거한 일본 정부(통감부)를 상대로 한 정치담판’을 벌이고자 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 외에 수년간에 걸친 수많은 실제 전투행위와 이후 남한 대토벌 작전 등 대규모 살상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입론은 연구자들에게도 파장과 반론이 클 것으로 보인다.
- 4) 2부 2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부연해서 남접이 삼례 재기포 후 정세를 관망하고 머뭇거린 것은 이준용을 앞세운 쿠데타 계획이 파탄 난 것을 여러 경로로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공사관과 마찬가지로 남접 동학농민군과 홍선대원군의 관계에 집착한 것으로 대원군을 믿지 않았던 전봉준 집단의 활동이 이에 크게 규정되어 있다는 논리는 실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설득력이 약하다.

제3부

- 1) 3부 1장의 ‘농민군인가, 동학군인가?’라는 소제목과 내용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 ‘동학농민군’을 부정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시위대인가, 혁명군인가?’라는 소제목과 내용에서 그들이 소지했던 각종 무기류들은 시위(퍼포먼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시위도구에 가깝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1년 동안 목숨 건 ‘시위’의 사례가 있었는가?
- 2) 3부 2장에서 장두재를 ‘동학군’이 아닌 ‘쿠데타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의 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장두재를 공주 점거투쟁의 ‘성격과 의미’를 강조하는 이 장에서 갑자기 ‘쿠데타 주도세력’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려면 범주와 정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장두재는 북접 지도부 중 홍선대원군과 관련이 큰 인물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필자가 사용하는 용어까지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 지수걸 저,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

인 쇄 : 2025년 2월 11일

발 행 : 2025년 2월 11일

발행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 화 : 063-530-9431
